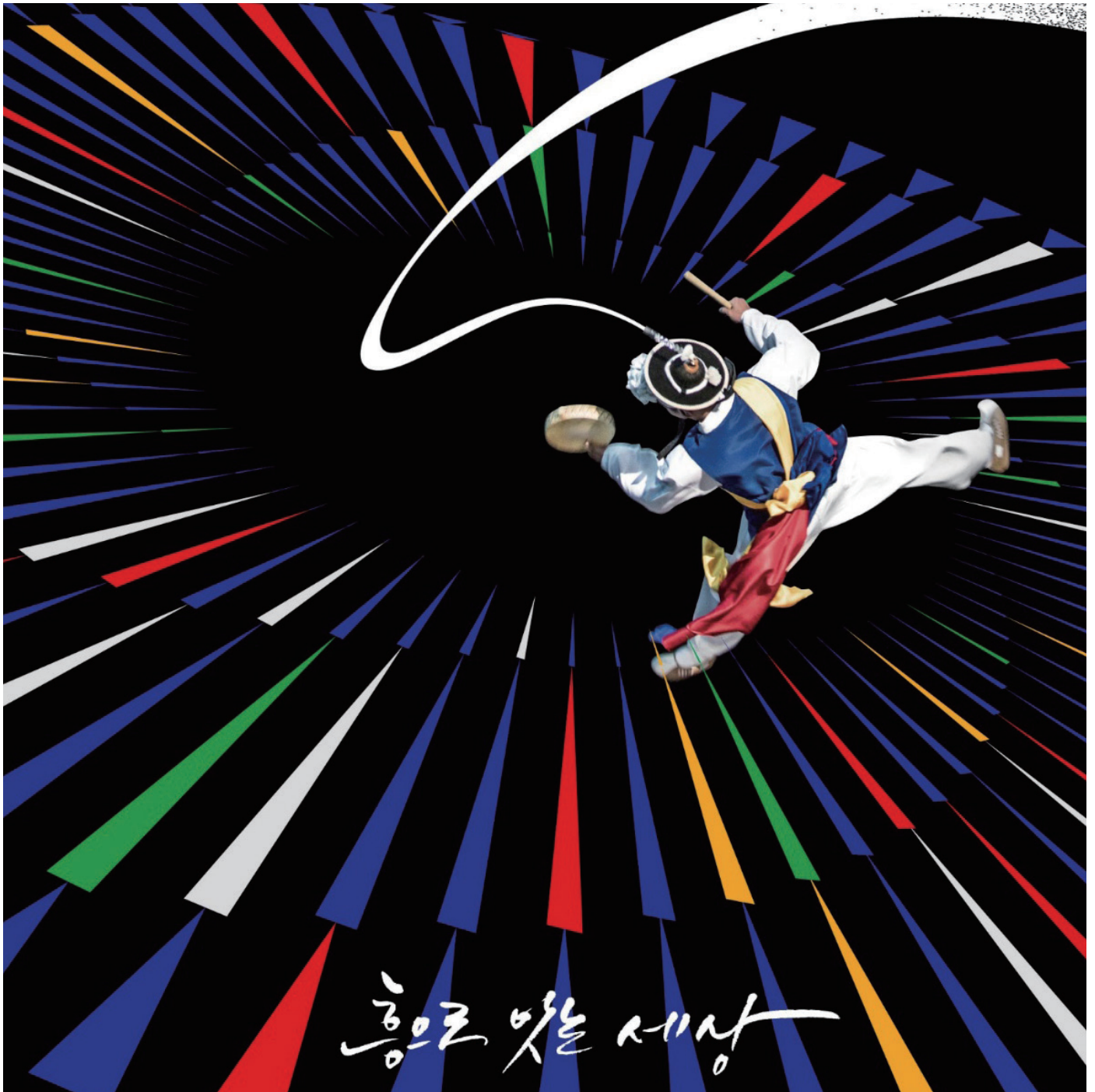




문화누리

07

JULY 2026

Vol. 286



문화누리

발행인 장금용
 발행처 창원문화재단
 기획·취재 창원문화재단 기획정책부
 편집집 엘앤비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홈페이지 <http://www.cwcf.or.kr>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문화누리]에 게재된 내용은 허가 없이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문화누리]에 실린 기사 및 이미지는 창원문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프로그램 및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COVER
 국립국악원
 연희(人)-판

Contents

이달의 문화길잡이 多

- 04 **오늘 창원은** 7월 공연·전시 여기에
- 08 **취향의 지도** 국립합창단 시네마 클래식
국립국악원 연희(人)-판
가족뮤지컬 〈알파블록스〉
2026 모닝콘서트 7월
「여름을 깨우는 하모니」
미스트롯4 「전국투어 콘서트 - 창원」
미디어아트 콘서트
「클로드 모네, 빛을 따라가는 여정」
퓨전국악뮤지컬 「낭만도깨비전」
2026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
「시간을 그리는 움직임」
엘리자베스 랭그리터 - 매일이 휴가

일상에서 만나다

- 18 **결으로** 역사를 담고 시대를 그리다 :
3·15 미술대전 & 성산미술대전
- 22 **청색 신호** 더 크게 울리기 위한 약속
- 24 **예술 한걸음** 신의 세상에서 인간으로
르네상스 미술의 부활

사람으로 따뜻해지다

- 28 **36.5도** 시대를 앞선 상상력, 자유상상화
- 32 **너머의 생각** 붓끝과 그림 속에 숨은 뜻을 읽다

도시의 시선으로 넓어지다

- 38 **문화기행** 춤(발레), 몸보다 뇌를 더 많이 쓰는 예술
- 42 **이달의 트렌드** 버려진 공간의 화려한 변신,
업사이클링 문화공간

함께 문화가 되다

- 44 **잇다** 한국 전통건축은 예술일까?
- 54 **참여 마당** 당신의 한 문장이 창원의 다음 페이지로



월간 [문화누리]는
언제 어디서든
E-Book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시원한 그늘,”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달구는 계절,
지친 일상에도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

무심코 별을 피해 들어선 전시장과 공연장에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푸르게 가지를 드리운 예술이 있다.

치열한 고뇌와 진심으로 가꿔온 창작의 시간이
시민의 평온한 휴식과 마주하는 7월
창원의 문화는 예술의 품 안에서 한층 싱그럽고 여유롭게 물들어간다.

청량하고 다정한 이 계절의 그늘 아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을 건네는 또 하나의 휴식을 만나보길 바란다.

이번 달, 당신의 여름날 곁에 머물
7월의 무대와 전시를 소개한다.



[공연]



국립합창단 시네마 클래식

| 2026. 7. 3. (금) 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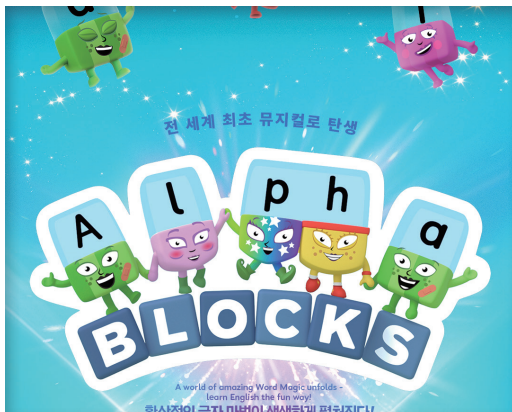
| 성산아트홀 대극장

| 영화 속 명장면을 합창의 울림으로 만나는
클래식 콘서트“스크린을 물들인 선율이 무대 위 목소리로
다시 피어납니다”

국립국악원 연희(人)-판

| 2026. 7. 9. (목) 19:00

| 성산아트홀 대극장

| 전통 연희의 흥과 에너지를 한판으로
펼쳐내는 국악 무대“장단이 뛰고, 흥이 번지는
우리 소리의 뜨거운 한판”

가족뮤지컬 <알파블록스>

| 2026. 7. 11. (토) 11:00, 14:00, 16:30

2026. 7. 12. (일) 11:00, 14:00, 16:30

| 3·15아트홀 대극장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신나는 블록 친구들의
뮤지컬 모험

“아이의 상상력이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시간”



2026 모닝콘서트 7월 「여름을 깨우는 하모니

| 2026. 7. 14. (화) 11:00

| 성산아트홀 소극장

| 테너 박완과 Sarah J. 트리오가 선사하는
여름 아침의 음악 선물“한여름의 아침을 부드럽게 깨우는
목소리와 선율”



<공동주최> 미스트롯4

| 2026. 7. 18. (토) 13:00, 18:00

| 성산아트홀 대극장

| 뜨거운 무대와 감동의 목소리로 만나는
트롯 콘서트

“가슴을 울리는 노래, 여름밤을 뜨겁게 채우다”



미디어아트 콘서트

<클로드 모네, 빛을 따라가는 여정>

| 2026. 7. 18. (토) 15:00

| 성산아트홀 소극장

| 모네의 빛과 색을 음악과 미디어아트로 만나
는 감성 콘서트

“빛이 흐르고 음악이 번지는, 한 폭의 여름 인상”



퓨전국악뮤지컬 <낭만도깨비전>

| 2026. 7. 24. (금) 19:30

| 3·15아트홀 소극장

| 국악과 뮤지컬이 어우러진 유쾌하고
낭만적인 도깨비 이야기

“우리 장단에 실려 찾아온
도깨비들의 특별한 낭만”



[2026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

시간을 그리는 움직임

| 2026. 7. 25. (토) 17:00

| 성산아트홀 소극장

| 몸의 언어로 시간의 감각을 그려내는
움직임의 무대

“말보다 깊은 움직임으로 시간을 바라보는 순간”

[전시]



엘리자베스 랭그리터 - 매일이 휴가

- ▶ 2026. 7. 16. (목) ~ 2026. 10. 11. (일)
- ▶ 3·15아트홀 제1~3전시실
- ▶ 일상의 행복을 유쾌한 색감으로 만나는 전시
“바쁜 하루 끝, 그림 속으로 떠나는
가장 가까운 휴가”



2026 창원역사민속관 기획특별전

<별의 축제, 성신(星神)대제>

- ▶ 2026. 4. 14. (화) ~ 2026. 7. 12. (일)
- ▶ 창원역사민속관 기획전시실
- ▶ 전시 한 줄 안내
“전시 관련 감성 한 줄”

[참여]



SAC on Screen <마술피리>

- ▶ 2026. 7. 22.(수) 15:00
- ▶ 창원역사민속관 영상실
- ▶ 모차르트가 선사하는 유쾌하고 신비로운 모험 오페라
“마법 같은 음악이 안내하는
환상적인 오페라 여행”



명작영화컬렉션 <마틸다>

- ▶ 2026. 7. 29.(수) 15:00, 19:00
- ▶ 창원역사민속관 영상실
- ▶ 상상력과 용기로 세상을 바꾸는 소녀의 특별한 이야기
“작은 용기가 커다란 기적이 되는
사랑스러운 영화 시간”

시
네
마
클
래
식

국립합창단
CINEMA
CLASSICS

지휘 민인기

합창 국립합창단

관현악 뮤지컬팝스오케스트라

2026.7.3.(금) 7:00PM 성산아트홀 대극장

홍으로 빛나는 세상

연희판



2026.7.9 목 19:00
성산아트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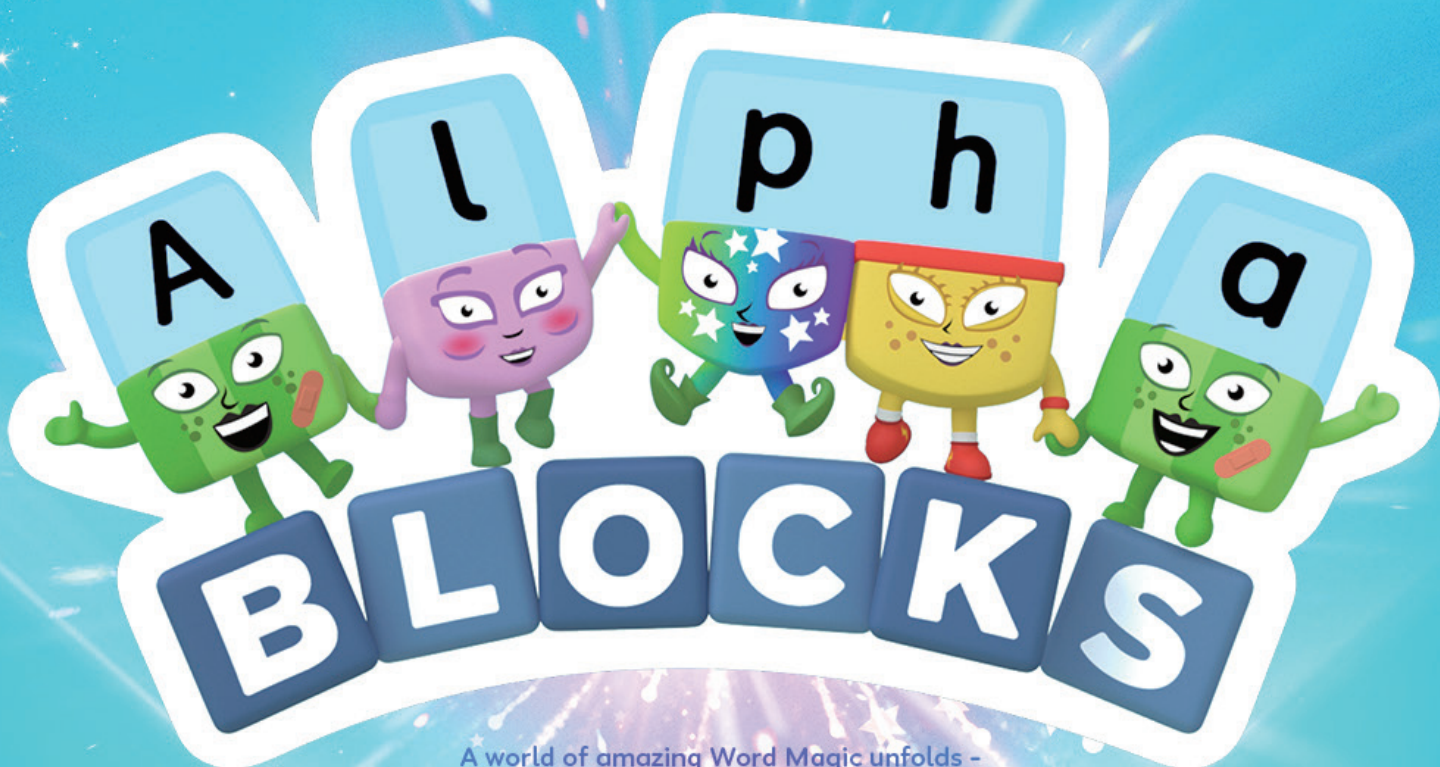
연출 오영환
예술감독 유지숙

티켓 전석 1만원 예매  창원문화재단  YES24

출연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청년교육단원, 객원
주최·주관
창원문화재단, 국립국악원



전 세계 최초 뮤지컬로 탄생



A world of amazing Word Magic unfolds -
learn English the fun way!

환상적인 글자 마법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2026. 7. 11(토) - 12(일)
창원 3·15아트홀 대극장

공연예매 티켓링크 NAVER NOL ticket

공연문의 브러쉬씨어터 1600-8534

2026
여름의 문턱에서

5.12

‘보고싶다’ 작곡가 **윤일상**의
「어느 일상 콘서트」



 경남스틸과 함께하는

모닝 콘서트

6.9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조운성**
Jazz트리오 with **허성**
「초여름의 재즈 콘서트」



7.14

뮤지컬 ‘명성황후’ 고종황제 테너 **박완**
with **Sarah J.트리오**의
「여름을 깨우는 하모니」

매월 두번째 **화요일** 오전 11시
성산아트홀 소극장





트로트로 세상을 홀려라

미스트롯4

전국투어콘서트 - 창원

2026.07.18(토) 오후1시, 6시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

TV
CHOSUN

Show 堂 Ent

FANLIGHT

미디어아트 콘서트

창원문화재단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클래식 캔버스 시리즈 2

빛을 따라가는 여정 클로드모네



히스토리언 김세환



테너 김재민



소프라노 주희원



바이올린 이재호



첼로 이길재



피아노 최영민



2026. 7. 18(토) 오후 3시



성산아트홀 소극장

전석 2만원 초등학생 이상

창원문화재단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YES24티켓

메트라이프 재단 문화예술 사회공헌 'The Gift'

낭만 도깨비!전

2026.07.24.(금) 오후 7시 30분
창원 3·15아트홀 소극장

퓨전 국악밴드
찰찰웅

무더위를 날려줄 신나는 여름 밤 무대, <낭만도깨비전>
전래동화 '흑부리 영감'을 퓨전국악 뮤지컬로 새롭게 만나보세요!

시간을 그리는 춤 작업

Drawing Time Through Movement

2026년 7월 25일 (토) 17시
성산아트홀 소극장

주최:



창원문화재단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주관:



디아즈댄스컴퍼니
DIAZ DANCE COMPANY

2026
7.16
— 10.11

EVERYDAY CAN BE HOLIDAYS

매일이 휴가

엘리자베스 랭그리터

3·15아트홀 전시장

주최

 창원문화재단

협력

DCOMM

문의

055.719.7800~1

예매

창원문화재단 홈페이지 / **yes24** 티켓 / **NAVER** 예약

그 외 창원은...

[공연]

7.4.(토)

제9회 정기연주회
3·15아트홀 소극장

7.5.(일)

가족뮤지컬 '정글북'
성산아트홀 소극장

7.5.(일)

2026 라이브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진해아트홀

7.8.(수)

2026 신나는 소리나들이
3·15아트홀 대극장

7.9.(목)

2026 들려줌콘서트
3·15아트홀 소극장

7.11.(토)

2026 가족매직콘서트 <판타스틱 매직콘서트>
진해아트홀

7.18.(토)

2026 경남필하모닉청소년관악단 기획연주 '시네마
콘체르토'
3·15아트홀 대극장

7.19.(일)

2026 라이브 가족뮤지컬 <프린세스 공주>
진해아트홀

7.21.(화)

교보 노블리에 시네라이프
성산아트홀 소극장

7.22.(수)

2026 썸머 콘서트
성산아트홀 대극장

7.25.(토)

2026 <더:매직서커스>
진해아트홀

[전시]

7.1.(수)~7.7.(화)

제6회 (사)한국캘리그래피창작협회 경상남도지회전
진해아트홀 구민회관

7.8.(수)~7.13.(월)

바니타스의 진실(The Truth of Vanitas)
성산아트홀 제2전시실

제3회 경상남도명장전

성산아트홀 제4전시실

구일서법연구회 회원전 “귀근득지전(歸根得旨展)”

성산아트홀 제5전시실

이정 김은수 제2회개인전 꿈을그리는 서예

성산아트홀 제6전시실

7.15.(수)~7.20.(화)

2026 경남전업미술가협회 대작전 “축적된 시간, 이
어진 시선”展

성산아트홀 제1전시실~제4전시실

2026경남전업미술가협회 2025 경남전업미술가협회

창작상 수상작가 초대전

성산아트홀 제5전시실

“일상으로의 초대”展

성산아트홀 제6전시실

7.16.(목)~10.11.(일)

엘리자베스 랭그리터 - 매일이 휴가

3·15 아트홀 제1전시실~제3전시실

7.29.(수)~8.3.(월)

나는 십자가를 보았다

성산아트홀 제3전시실

(사)한국서각협회 제 19회 창원지부전

성산아트홀 제5전시실

제4회 ‘그린 하루 전’

성산아트홀 제6전시실

3·15 미술대전

역사를 담고 시대를 그리다

창원 미술의 두 기둥, 시민의 곁으로

글. 윤해리

성산미술대전

창원의 미술문화는 지역 예술인들의 꾸준한 창작 활동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어져 왔다. 그 흐름 속에서 '3·15미술대전'과 '성산미술대전'은 창원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을 소개해 온 미술 공모전이다.

두 미술대전은 수상작을 선정하는 공모의 장을 넘어,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미술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번 7월호에서는 3·15미술대전과 성산미술대전의 의미를 살펴보고, 2026년 수상자 인터뷰와 수상 작품을 통해 창원 미술의 현재를 함께 조명한다.

3·15미술대전 - 민주주의 정신을 예술로 잇고 지역 미술의 내일을 열다

3·15미술대전은 창원이 품고 있는 역사적 기억과 예술적 감수성을 하나로 잇는 뜻깊은 무대이다. 1960년 우리 역사에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운 3·15의거의 정신, 그리고 오랜 시간 지역 미술의 토양을 다져온 마산의 예술혼은 이 공모전의 중요한 뿌리가 되어왔다. 작가들은 저마다의 시선과 조형 언어를 통해 시대의 감각을 작품으로 풀어낸다. 작품 안에는 개인의 미적 탐구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지역, 일상에 대한 사유가 함께 담긴다. 그런 점에서 3·15미술대전은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오늘의 예술이 시대와 어떻게 호흡하는지를 보여주는 창작의 장이라 할 수 있다.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서예, 문인화, 서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 공모전은 지역 미술의 저변을 넓히고 신진 작가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올해 제17회를 맞은 3·15미술대전은 창작자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선보이는 무대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3·15의거의 정신을 예술로 다시 만나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이 공모전의 의미는 과거의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새롭게 이어간다는 데 있다. 역사적 기억은 전시장 안에서 색과 선, 재료와 형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시민은 작품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역 예술의 현재를 함께 마주하게 된다. 3·15미술대전은 그렇게 창원의 역사와 예술, 그리고 시민의 일상을 잇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다.



2026 3.15 미술대전 수상작

[① 수채화 부문 : 송 미 선 작가 (이끼의 숲), ② 서양화 부문 : 추 현 주 작가 (Stay), ③ 서각 부문 : 박 영 식 작가 (문도)]

2026 성산미술대전수상작

[④ 서양화 부문 : 최 순 주 작가 (오늘의 선물), ⑤ 문인화 부문 : 권 동 균 작가 (소나무), ⑥ 구 판 우 작가의 (용자불구(勇者不懼))]]

성산미술대전 - 창원의 정체성을 담아, 시민과 호흡하는 현대 미술의 장

성산미술대전은 창원 미술의 폭을 넓히고 지역 예술의 흐름을 풍성하게 만들어온 또 하나의 중요한 무대다. '성산'이라는 이름이 지닌 지역적 상징성 위에서 출발한 이 공모전은 산업도시 창원에 문화와 창조의 감각을 더하며,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만나는 열린 장으로 성장해 왔다.

성산미술대전은 전통미술의 깊이와 현대 미술의 실험성을 함께 아우른다. 회화, 서예, 문인화, 공예, 서각,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한 공간에 놓이며, 관람객은 동시대 미술의 여러 흐름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작가들에게는 창작의 방향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미술을 더 친근하게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 특히 신진 작가의 새로운 시도와 중견 작가의 깊이 있는 작품세계가 함께 소개된다는 점에서 성산미술대전의 의미는 크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들은 작가가 쌓아온 고민과 실험, 그리고 예술을 향한 성실한 시간을 담고 있다. 한 점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시장에 놓인 결과물은 그 치열한 시간을 조용히 증명한다.

성산미술대전은 창원이라는 도시가 지닌 문화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북돋고, 시민이 예술을 일상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 공모전은 창원문화재단이 지향하는 '문턱 없는 문화 플랫폼'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예술이 특별한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때, 도시는 더 풍요로운 문화적 표정을 갖게 된다.

2026년 영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다

제17회
3·15미술대전
수채화 부문 대상
송미선 작가

Q. 이번 대상 수상작을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작품 〈이끼의 숲〉은 맑은 지리산 계곡에서 마주한 한 장면에서 출발했습니다. 계곡의 물과 바위, 그 위에 자리한 이끼가 만들어내는 고요하고 생생한 풍경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연이 품고 있는 맑고 깊은 분위기를 수채화로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Q. 수상작의 주제와 제작 의도를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A. 〈이끼의 숲〉은 지리산 계곡의 한 장면을 포착한 작품입니다. 물기 어린 바위와 이끼, 숲의 기운이 어우러진 장면을 통해 자연이 지닌 생명력과 청량함을 담고자 했습니다. 화려한 풍경보다 조용히 들여다볼수록 깊어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Q.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가장 오래 고민하거나 공들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A. 수채화는 물의 농도와 번짐, 색의 투명함이 중요한 장르입니다. 계곡의 맑은 분위기와 이끼의 촉촉한 질감, 숲속의 빛과 공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실제 풍경이 가진 생생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수채화 특유의 맑은 느낌을 살리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Q. 이번 공모전이 작가님께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나요?

A.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젊은 시절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붓을 들게 되었고, 그림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이번 수상은 늦게 시작해도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Q. 작품을 감상할 시민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오래 품어온 꿈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용기 내어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열정이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17회
3·15미술대전
서각 부문 대상
박영식 작가

Q. 이번 대상 수상작을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경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서각반 하인식 지도교수님의 가르침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닌 깊이 있는 한학 지식과 추천을 바탕으로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Q. 수상작의 주제와 제작 의도를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A. 작품명은 〈문도(聞道)〉입니다. 중국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한자의 초기 글씨체인 전서체로 표현했습니다. 직역하면 ‘도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도를 깨우친 사람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행하고, 어느 정도 깨우친 사람은 믿는 듯 믿지 않는 듯하며, 도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도를 듣고 비웃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해 작품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가장 오래 고민하거나 공들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A. 작품명인 두 글자 ‘문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돋보이게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글자의 힘과 함께 여백의 미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공을 들였습니다.

Q. 이번 공모전이 작가님께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나요?

A. 환갑을 지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인생 2막을 어떻게 하면 더 멋있고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각과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그만큼 몰입하다 보니 서각으로 대상이라는 큰 영광도 얻게 되었고, 기타로는 거리 버스킹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알려준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Q. 작품을 감상할 시민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도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삶이 즐겁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을 계획 없이 무의미하게 보내기보다, 무엇이든 새롭게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도전하는 삶은 아름답고, 무언가에 깊이 몰입할 때 삶은 더욱 즐거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제17회
3·15미술대전
서양화 부문 최우수상
추 현 주 작가

Q. 이번 수상작을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연꽃의 모습을 작품에 담고 싶었습니다. 연꽃이 지닌 고요한 생명력과 깨끗한 아름다움을 통해, 자연이 전하는 삶의 태도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Q. 수상작의 주제와 제작 의도를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A.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따사로운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작품을 보는 분들이 연꽃의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작은 위안과 평온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Q.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가장 오래 고민하거나 공들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A. 연꽃이라는 익숙한 소재를 어떻게 하면 신선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가장 많이 고민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편안하게 다가갈 바라는 마음으로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상을 사용했고, 몽환적인 느낌이 살아나도록 표현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Q. 이번 공모전이 작가님께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나요?

A. 작품 활동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전 역시 그동안의 노력의 산물을 선보이는 자리라는 것만으로도 뜻깊었는데, 수상까지 하게 되어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Q. 작품을 감상할 시민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고,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제39회
성산미술대전
서양화 부문 대상
최 순 주 작가

Q. 이번 대상 수상작을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투박하고 거친 질감의 종이봉투와 그 안에 담긴 화려하고 섬세한 꽃들의 대비에서 출발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을 작품에 담고 싶었습니다.

Q. 수상작의 주제와 제작 의도를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A. 작품 제목은 〈오늘의 선물〉입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소박한 꽃봉투 하나를 나를 위한 선물처럼 안고 간다면 따뜻한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제목도 〈오늘의 선물〉로 정했습니다.

Q.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가장 오래 고민하거나 공들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A. 크라프트지의 두껍고 거친 질감과, 겹겹이 둘러진 흰 속지를 표현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서로 다른 재질감이 화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고민했습니다.

Q. 이번 공모전이 작가님께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나요?

A. 저는 미술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취미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의도한 대로 표현이 되지 않을 때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상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Q. 작품을 감상할 시민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제 작품뿐 아니라 전시장에 놓인 많은 작품을 따뜻한 시선으로 눈여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작품마다 작가의 고민과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느라 고생했구나” 하고 격려해 주신다면, 작가들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민 결의 문화, 창작 결의 재단

3·15미술대전과 성산미술대전은 창원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이어져 온 미술 공모전이다. 두 미술대전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소개하고, 시민이 다양한 작품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창원문화재단은 이러한 공모전과 전시를 통해 예술인과 시민을 연결하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미술은 특정한 공간이나 전문가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의 동네와 전시장,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 작품을 만나고 감상하는 경험을 통해 문화는 더욱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3·15미술대전과 성산미술대전은 창원 미술의 흐름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중요한 문화 자원이다. 창원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더 크게 울리기 위한 약속

3·15아트홀 하반기 「화요명작예술감상회」 수강생 모집

‘2026 공예주간 : 공예로(路) 창원’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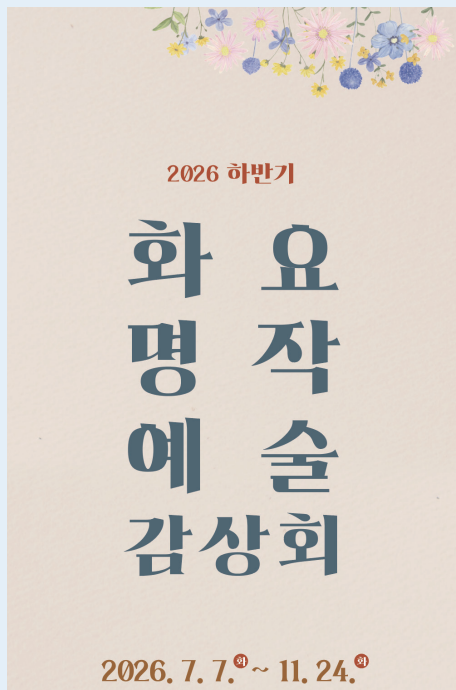
창원문화재단 「월간공예 7월」 수강생 모집

글. 윤해리



3·15아트홀 하반기 「화요명작예술감상회」 수강생 모집

- 7월부터 11월까지 서예·저속노화·전통주·프랑스 문화·영화 인문학 강좌 운영 -



창원문화재단 3·15아트홀이 7월부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2026년 하반기 「화요명작예술감상회」 수강생을 모집한다. 「화요명작예술감상회」는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3·15아트홀의 교양강좌 프로그램이다. 하반기 강좌는 7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3·15아트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월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서예, 건강인문학, 전통주, 프랑스 문화예술, 영화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3·15아트홀은 이번 하반기 강좌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과 예술을 접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문화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정	강사	주제
7월 (7, 14, 21, 28)	조현판	서예의 구도 (構圖)와 착시현상 (錯視現象)
8월 (4, 11, 18, 25)	전유진	건강인문학, 저속 노화를 위한 삶의 균형
9월 (1, 8, 15, 22)	허승호	경남 전통주의 헤리티지
10월 (6, 13, 20, 27)	염재상	프랑스 문화예술 여행
11월 (3, 10, 17, 24)	박선정	영화에 묻는다 : AI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2026 공예주간 : 공예로(路) 창원’ 마무리

- 성산아트홀·창원공예오픈스튜디오 일원에서 동남권 공예문화 소개 -



창원특레시가 주관하고 창원문화재단이 수행한 전국 단위 공예 축제 ‘2026 공예주간 : 공예로(路) 창원’이 한 달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창원공예오픈스튜디오 개소 이후 처음 맞이한 전국 단위 공예주간 행사로,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공예문화의 전통과 현재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인 특별전 <장인의 공간>은 성산아트홀 지하 특별전시실에서 열렸다. 경상남도무형유산 매듭장 배순화 장인을 비롯해 통영 나전장 박재성, 염장 조대용, 진주 소목장 정진호, 부산 화해장 안해표, 울산 판각 장 한초, 김해 이한길 도자명장 등 영남권 장인 7인의 작품 110여 점이 출품돼 전통공예의 다양한 면모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장인과의 대화>, 공예마켓, 야간 프로그램 <공예의 밤 Craft Night>, 연계 투어 <공예로(路) 산책>, 교육 프로그램 <장인의 시간> 등이 진행돼 시민들이 공예를 전시와 체험, 교류의 방식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2026 공예주간 : 공예로(路) 창원’은 공예가 지닌 전통성과 생활문화적 가치를 시민과 나누는 행사로 진행됐다. 창원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창원공예오픈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시민이 공예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창원문화재단 「월간공예 7월」 수강생 모집

- 목공예·금속·유리·섬유 등 6개 분야 21개 프로그램 운영 -

12월 14일 2026
창원공예오픈스튜디오 창원의 공간

2026 창원공예오픈스튜디오 창원의 공간

당신과 어울리는 7월 공예

일정표

수	목	금	토
		12월 26일 금요일 10:30~12:00 12월 27일 토요일 10:30~12:00	
01	02 목요일 10:30~12:00 13:30~15:00 18:30~20:00 금속공예 - 15차 금속공예 - 2차	03 금요일 10:30~12:00 13:30~15:00 18:30~20:00 금속공예 - 15차 금속공예 - 2차	04 토요일 10:30~12:00 13:30~15:00 18:30~20:00 유리공예 - 15차 유리공예 - 2차
08	09 목요일 10:30~12:00 13:30~15:00 18:30~20:00 금속공예 - 2차	10 금요일 10:30~12:00 13:30~15:00 18:30~20:00 금속공예 - 2차	11 토요일 10:30~12:00 13:30~15:00 18:30~20:00 유리공예 - 2차
15	16 목요일 10:30~12:00 13:30~15:00 18:30~20:00 금속공예 - 3차	17 금요일 10:30~12:00 13:30~15:00 18:30~20:00 금속공예 - 3차	18 토요일 10:30~12:00 13:30~15:00 18:30~20:00 유리공예 - 3차
22	23 목요일 10:30~12:00 13:30~15:00 18:30~20:00 금속공예 - 4차	24 금요일 10:30~12:00 13:30~15:00 18:30~20:00 금속공예 - 4차	25 토요일 10:30~12:00 13:30~15:00 18:30~20:00 유리공예 - 4차
29	30 목요일 10:30~12:00 13:30~15:00 18:30~20:00 금속공예 - 5차	31	

창원공예오픈스튜디오

창원공예오픈스튜디오

창원공예오픈스튜디오

* 1월 2주 프로그램 참여자가 많아서 1월 3주 프로그램 참여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1월 2주 프로그램 참여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신청방법

- 창원공예오픈스튜디오 홈페이지 (cwcraft.or.kr) 접속 후 YES24로 신청

문의

- 창원공예오픈스튜디오팀 055-268-7984

창원문화재단이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2026 창원공예오픈스튜디오 월간공예 프로그램 7월 : 여름 바캉스 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창원공예오픈스튜디오 목공예실과 금속공예실에서 운영된다. 성인 일반 시민은 물론 퇴근 후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산업단지 근로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전·오후·저녁 시간대로 나누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당신과 어울리는 7월 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과정은 목공예, 금속공예, 유리공예, 섬유공예, 라탄공예, 비누공예 등 총 6개 분야 21개 세부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용도함, 다기장, 소반, 반려동물 식기받침대, 위빙 체어 등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목공예 품목이 마련됐다. 금속공예 과정에서는 황동 문진, 황동 모빌, 뿔꽃 칠보반지 등을 제작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테인드 조명, 라탄 유리화 병, 라탄 채반, 과일 입체 지수 바란스, 크림비누, 페인팅숍 등 여름철 인테리어와 일상에 어울리는 바캉스 테마의 공예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창원문화재단은 「월간공예」를 통해 시민들이 공예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공예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7월 프로그램은 직접 만들고 사용하는 공예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여름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의 세상에서 인간으로 르네상스 미술의 부활

글 윤해리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 속 비밀: 르네상스 미술

예술은 어렵고 난해하다는 편견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작품 속 원리와 감상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서양 미술사의 중요한 전환기인 르네상스 미술을 살펴봅니다.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르네상스의 탄생

중세 유럽 미술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 주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인물은 종교적 상징과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고, 인간의 몸과 감정 역시 신앙의 질서 안에서 해석되었다. 15세기 이탈리아, 특히 피렌체를 중심으로 미술의 시선은 점차 인간과 현실 세계로 향하기 시작했다.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인간의 존엄과 이성을 중시하는 인문주의가 확산되면서 예술가들은 인체와 자연, 감정과 공간을 더 세밀하게 관찰했다. 르네상스 미술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보다 자연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표현을 발전시켜 나갔다.

① 레오나르도 다 빈치 <최후의 만찬>: 배신자를 찾아라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수도원의 식당 벽에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 이 작품은 예수가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 말한 직후,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순간을 담고 있다.

당시의 다른 <최후의 만찬> 도상에서는 유다를 따로 배치하거나 쉽게 구별되도록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레오나르도는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같은 식탁에 앉히면서도, 어둠 속으로 물러나는 자세와 돈주머니로 해석되는 물건을 통해 배신의 암시를 드러냈다. 이 장면은 사건의 긴장과 인물들의 심리적 반응을 함께 보여준다.

②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다비드>: 왜 머리와 손이 크게 보일까?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머리와 오른손이 신체 비율에 비해 크게 보인다. 이는 원래 이 조각이 피렌체 대성당의 높은 지붕선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점과 관련해 해석된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관람 환경을 고려해 중요한 부분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비드>의 비례는 단순한 오류라기보다, 조각이 놓일 공간과 관람자의 시선을 함께 고려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품을 볼 때는 다비드의 시선과 손, 몸의 긴장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면 좋다.

③ 산드로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고대 신화가 회화의 중심에 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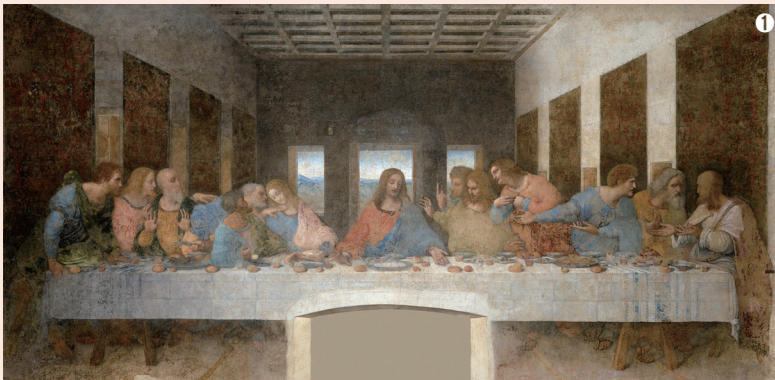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고대 신화 속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가 바다에서 태어나 해안에 도착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중세 미술에서 나체는 주로 종교적·도덕적 의미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르네상스 시기에는 고대 조각과 신화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며 인간의 몸과 아름다움을 새롭게 표현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 작품은 메디치 가문과 관련된 피렌체의 인문주의적 문화 분위기 속에서 이해된다. 보티첼리는 비너스를 단순한 육체적 대상으로 그리기보다, 고대 신화와 이상적 아름다움을 결합한 상징적 존재로 표현했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과 꽃, 조개의 형태를 따라가며 화면의 장식성과 상징성을 함께 감상해볼 수 있다.

④ 라파엘로 산치오 <아테네 학당>: 고대 철학과 르네상스의 만남

바티칸 궁전에 그려진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은 고대 철학자와 학자들이 한 공간에 모인 상상의 장면을 보여준다. 화면 중앙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배치되어 있으며, 두 인물의 손짓은 각각 이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향한 철학적 태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작품에는 르네상스 시대 인물들을 떠올리게 하는 초상적 요소도 담겨 있다. 플라톤의 얼굴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헤라클레이토스는 미켈란젤로의 초상으로 설명된다. 또한 오른쪽 끝 검은 모자를 쓴 인물은 라파엘로 자신의 자화상으로 알려져 있다. 인물들의 위치와 시선, 건축적 공간의 질서를 함께 보면 작품의 조화가 더 잘 드러난다.



⑤ 얀 반 에이크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 북유럽 르네상스의 정밀한 시선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미술이 발전하던 시기, 북유럽 플랑드르 지역에서도 새로운 회화적 변화가 나타났다. 그 중심에 있던 화가 중 한 명이 얀 반 에이크다. 그는 유화 기법을 정교하게 활용해 인물과 사물, 빛과 질감을 세밀하게 표현했다.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은 한 남녀가 실내 공간에 서 있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오랫동안 결혼식 장면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부와 지위,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복합적인 이미지로 이해된다. 화면 뒤쪽의 둥근 볼록거울에는 문 쪽에 서 있는 두 인물이 작게 비치며, 거울 위에는 “얀 반 에이크가 여기에 있었다. 1434년”이라는 뜻의 문장이 적혀 있다. 작은 사물 하나까지 살펴보면 북유럽 르네상스 회화의 정밀함을 느낄 수 있다.

⑥ 티치아노 베첼리오 <우르비노의 비너스> : 신화의 형식과 현실의 공간이 만난 회화

피렌체와 로마의 르네상스 미술이 선과 형태의 질서를 중시했다면, 베네치아 미술은 색채와 빛, 감각적인 분위기를 중요하게 발전시켰다. 티치아노는 이러한 베네치아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로, 풍부한 색채와 부드러운 질감 표현을 통해 인물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침대 위에 누운 여인을 그린 작품이다. 제목은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를 가리키지만, 배경은 신화 속 올림포스가 아니라 16세기 베네치아 상류층의 실내 공간을 떠올리게 한다. 뒤편에는 옷궤를 살피는 하녀들이 있고, 여인의 발치에는 잠든 개가 놓여 있다. 이 개는 결혼의 충실함을 상징하는 요소로 해석된다. 신화적 이름과 현실적 공간이 한 화면 안에서 만나는 지점을 살펴보면 작품의 의미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⑦ 산드로 보티첼리 <프리마베라> : 신화의 정원에 담긴 자연 관찰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는 봄의 기운이 가득한 숲속을 배경으로 고대 신화 속 인물들이 등장하는 작품이다. 화면에는 비너스를 중심으로 삼미신, 머큐리, 큐피드, 봄의 여신 플로라 등으로 해석되는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랑과 풍요, 봄의 도래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읽힌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물들만이 아니다. 발밑의 풀밭과 화면 곳곳에 피어난 꽃들도 중요한 감상 포인트다. 우피치 미술관 자료에 따르면 이 작품에는 최소 42종의 식별 가능한 식물이 묘사되어 있으며, 보티첼리가 식물표본을 참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대 신화에 대한 인문주의적 관심과 자연 세계를 세밀하게 관찰하려는 태도가 함께 담긴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미술관에서 영화 즐기기

르네상스 미술을 조금 더 깊이 감상하고 싶다면, 화가들이 화면 안에 사용한 표현 원리를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작품을 볼 때 아래 세 가지 요소를 천천히 살펴보면, 그림의 구성과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션 1 : 화면 속 '소실점'을 찾아보기

르네상스 화가들은 평평한 화면에 깊이감을 만들기 위해 원근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림 속 건물의 기둥, 천장의 선, 바닥의 무늬가 어느 방향으로 모이는지 눈으로 따라가 보면 화면 안의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는 건축적 선들이 화면 중심부로 모여, 관람자의 시선을 주요 인물에게 이끌어간다. 소실점을 찾아보는 것은 화가가 공간과 시선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이해하는 좋은 감상 방법이다.

미션 2 : 안정감을 주는 삼각형 구도 살펴보기

르네상스 회화에서는 인물을 안정감 있게 배치하기 위해 삼각형 또는 피라미드형 구도가 자주 활용되었다. 특히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그린 작품들에서는 인물들의 머리와 어깨, 옷자락이 삼각형을 이루며 화면에 균형감을 준다.

이러한 구도는 작품을 차분하고 조화롭게 보이게 한다. 전시장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면, 화가가 화면 전체의 질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다.

미션 3 : 경계선을 흐리는 스푸마토 기법 찾아보기

르네상스 회화에서는 인물과 배경, 빛과 어둠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는 시도가 발전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선을 또렷하게 긋기보다 부드러운 명암의 변화로 형태를 표현하는 스푸마토 기법을 능숙하게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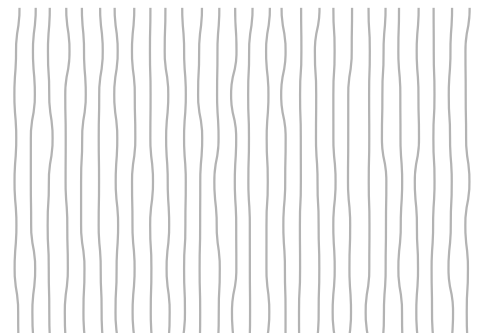
그림 속 인물의 눈꼬리, 입가, 턱선과 배경이 만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경계가 칼로 자른 듯 분리되어 있지 않고 안개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표정 역시 이러한 섬세한 명암 처리와 관련이 깊다.

감상은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예술 감상은 전문가의 해석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작품 앞에서 자신의 시선을 천천히 열어가는 경험이다. 소실점과 구도, 빛과 그림자의 표현을 하나씩 발견하다 보면 멀게만 느껴졌던 명화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다. 이번 주말, 가까운 전시장에서 작품을 천천히 바라보며 나만의 감상 포인트를 찾아보자.

| 이미지 출처 |

- ① 최후의 만찬 (출처: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 ② 다비드 (출처: Jörg Bittner Unna / Wikimedia Commons (CC BY 3.0))
- ③ 비너스의 탄생 (출처: Google Art Project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 ④ 아테네 학당 (출처: vatican.va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 ⑤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출처: The National Gallery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 ⑥ 우르비노의 비너스 (출처: Google Arts & Culture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 ⑦ 프리마베라(봄) (출처: Google Art Project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시대를 앞선 상상력 자유상상화

지역에서 다시 만나는 한 예술가의 이름

창원 지역의 근현대 미술을 이야기할 때 괴암 김주석(1927~1993)은 특별한 위치에 놓인다. 그는 화가이자 교육자였고, 동시에 항일독립운동의 경험을 지닌 인물이었다. 한 사람의 삶 안에 일제강점기의 억압, 해방 이후의 혼란, 지역 교육 현장의 시간, 그리고 끊임없는 창작의 과정이 함께 담겨 있다.

김주석의 이름이 오늘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지역에서 활동한 원로 화가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겪은 역사적 경험을 글과 그림으로 남겼고, 해방 이후에는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미술을 생활 속 교육과 연결했다. 또한 ‘자유상상화’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독자적인 작업 방식을 통해, 정해진 대상을 그대로 그리는 그림을 넘어 내면의 이미지와 상상을 화면에 펼쳐 보이려고 했다.

지역 예술인을 조명하는 일은 한 작가의 생애를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가 살았던 시대와 도시, 그가 남긴 작품과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일이다. 김주석의 삶과 작품은 창원 지역 미술이 어떻게 개인의 경험, 교육, 공동체의 기억과 만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글. 윤해리



항일운동의 기억과 예술가로서의 출발

김주석의 삶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지점은 청년 시절의 항일운동 경험이다. 그는 경성전기학교 재학 중 교우들과 함께 항일운동을 시도했으며, 이 일로 옥고를 치렀다. 이후 수감 생활과 고문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 남긴 사실은 그의 삶과 예술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기록들은 한 청년이 겪은 시대의 폭력과 고통, 그리고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김주석에게 그림은 아름다운 장면을 그리는 행위에만 머물지 않았다. 말로 다 옮기기 어려운 경험을 붙잡고, 내면에 남은 기억을 형상으로 남기는 방법이기도 했다.

해방 이후 그는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진해와 마산 등 경남 지역의 학교에서 오랜 시간 미술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을 만났다. 김주석에게 미술은 전문 작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훗날 '자유상상화'라는 방식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자유상상화, 정해진 형식에서 벗어난 상상의 화면

김주석의 작품세계를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말은 '자유상상화'다. 자유상상화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그리는 상상화로 설명된다. 이는 눈앞의 대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그림과는 다르다. 작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기억, 감정, 상징적 장면을 화면 위에 펼쳐 보인다.

이 방식은 미술교육과도 관련이 깊다. 그림에 자신이 없거나 미술 수업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열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상상화는 단순한 교육 방법에만 머물지 않고, 화면 안에서 선과 형태, 색과 리듬이 자유롭게 만나는 실험의 장으로 확장된다.

김주석의 자유상상화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정확히 그렸는가'를 따지는 일이 아니다. 화면 속 이미지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어떤 움직임과 감정을 만들어내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의 경험에서 출발한 기억은 상징으로 바뀌고, 감정은 선과 색으로 변주된다. 이 점에서 자유상상화는 김주석이 자신의 삶과 내면을 화면 안에서 풀어낸 하나의 조형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작가의 일생〉, 삶을 한 화면에 담다

김주석의 작품 가운데 〈작가의 일생〉은 그의 생애와 작업 태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언급된다. 이 작품은 자유상상화의 형식 안에 작가 자신의 인생사를 담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품 속에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르치는 장면, 미술 수업을 하는 모습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이 작품을 감상할 때는 먼저 ‘한 화면 안에 여러 시간이 공존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초상화가 한 인물의 얼굴이나 자세를 중심으로 보여준다면, 〈작가의 일생〉은 한 사람의 삶을 여러 장면과 상징으로 펼쳐 보이는 방식에 가깝다. 항일운동의 기억, 교육자로서의 활동, 예술가로서의 자기 인식이 한 화면 안에서 연결된다.

또한 이 작품은 김주석에게 예술과 교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지만 동시에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작가의 일생〉은 한 작가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록이자, 그가 중요하게 여긴 가치들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



수감의 기억을 남긴 글과 그림

김주석의 예술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감 생활과 고문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 기록은 그의 작품세계를 단순한 미적 실험으로만 보지 않게 만든다. 그림은 때로 시대의 증언이 되고, 개인의 고통을 잊히지 않게 하는 기억의 형식이 된다.

수감의 기억을 담은 그림을 감상할 때는 표현의 세련됨이나 미학적 완성도만을 기준으로 볼 수 없다. 그 안에는 폭력의 경험을 견뎌낸 한 개인의 기억, 그리고 그것을 뒤늦게라도 말하고자 한 기록의 힘이 담겨 있다.

이러한 작품과 기록은 김주석의 예술을 ‘자유’라는 말과 연결하게 한다. 여기서 자유는 단순히 마음대로 그리는 형식적 자유만을 뜻하지 않는다. 억압된 시대를 통과한 사람이 자신의 기억과 생각을 스스로 표현하려는 정신적 자유이기도 하다.

선, 색, 상상으로 이루어진 화면

김주석의 자유상상화는 작품 제목이나 정확한 도상을 알지 못해도 감상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선의 움직임이다. 그의 화면에서 선은 단순히 대상을 둘러싸는 윤곽선이 아니라, 이미지와 이미지를 잇고 화면 전체의 리듬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색 역시 중요한 감상 포인트다. 강한 색채가 쓰인 작품에서는 감정의 밀도와 에너지가 먼저 다가오고, 비교적 절제된 색채의 작품에서는 형태와 구조가 더 두드러진다. 자유상상화의 화면은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관람자가 자신의 시선으로 이미지를 따라가게 만든다.

또한 그의 작품에서는 자연과 인간, 기억과 상상이 분리되지 않고 뒤섞여 나타난다. 어떤 형상은 사람의 몸처럼 보이다가도 곧 산이나 물결, 혹은 추상적인 기호처럼 읽힌다. 작품을 감상할 때는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무엇처럼 보이는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가”를 질문하는 방식이 더 어울린다.

구상집과 기록,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린 사람

김주석이 남긴 구상집과 스케치는 그의 작업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구상집은 단순한 밑그림 모음이 아니라, 작가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어떻게 화면으로 옮기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고의 흔적이다. 메모와 스케치가 함께 남아 있다는 점은 그가 생각하고 기록하며 자신의 조형세계를 구축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유상상화는 즉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바탕에는 오랜 관찰과 반복적인 구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유로운 표현은 아무렇게나 그리는 것과 다르다. 자신 안에 축적된 이미지와 감정을 끌어내고, 그것을 화면 위에서 조율하는 과정에 가깝다.

이 점에서 그는 화가이면서 동시에 기록자였다. 항일운동의 경험을 기록했고, 교육자로서의 생각을 남겼으며, 작품을 위한 구상도 꾸준히 이어갔다. 작품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생각과 삶의 궤적이 함께 남아 있다는 점에서 김주석의 예술세계는 오늘 다시 조명될 의미를 갖는다.



김주석을 다시 읽는 이유

괴암 김주석의 삶과 작품은 창원 지역 예술이 지닌 여러 층위를 보여준다. 그는 항일운동의 경험을 지닌 인물이었고, 해방 이후에는 오랜 시간 미술교육에 힘쓴 교사였으며,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상의 세계를 펼친 화가였다. 김주석의 자유상상화는 정해진 형식에 머무르지 않는 표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대신, 내면의 이미지와 시대의 경험, 교육적 신념과 자유로운 상상을 화면 안에 담아냈다. 그의 작품 앞에서 관람자는 정답을 찾기보다 선과 색, 형상과 기억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김주석을 다시 조명하는 일은 그의 작품을 감상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가 남긴 작품과 기록을 어떻게 보존하고, 연구하고, 다음 세대와 나눌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항일운동의 경험을 담은 기록, 자유상상화라는 독자적인 표현 방식, 그리고 오랜 미술교육 활동은 각각 따로 떨어진 이력이 아니라 한 예술가의 삶 안에서 서로 연결된 흐름으로 읽을 수 있다.

지역 예술인을 기억하는 일은 과거의 이름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남긴 작품과 기록을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읽고, 다음 세대와 나눌 수 있는 문화적 자산으로 이어가는 일이다. 김주석의 예술은 창원 지역 미술의 한 흐름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술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과 시대를 기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김주석의 작품과 기록은 지역 미술사의 자료이자 시대의 기억을 담은 문화유산으로써 체계적인 정리와 보존이 필요하다. 남겨진 작품과 구상 자료, 기록물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자와 시민이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아카이브로 이어간다면, 김주석의 예술세계는 더 넓게 읽힐 수 있을 것이다.

붓끝과 그림 속에 숨은 뜻을 읽다

서예가 조현판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앞의 대상을 바라보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한 획의 방향, 비워진 여백, 화면 속 꽃과 새, 동물과 사물에는 작가의 사유와 시대의 감각, 그리고 오래된 상징의 언어가 담겨 있다.

3·15아트홀 「화요명작예술감상회」는 문화예술 작품 너머에 담긴 철학과 인문학적 의미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내는 감상 강좌다. 7월 강좌에서는 조현판 서예가가 서예와 옛 그림을 중심으로, 동양 예술을 읽는 방법을 소개한다.

〈서예 구도와 착시현상〉, 〈옛 그림의 상징이야기〉 등을 통해 서예와 그림이 단순한 시각예술을 넘어 문학, 철학, 인문학적 사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다.

글. 윤해리

서예가 조현판의 서예 작품. 화면에는 '서예'라는 큰 글자와 함께, '서예'를 반복적으로 배열한 패턴이 보인다. 이는 시각적 착시 효과를 유발하는 구성이다.



서예는 글씨가 아니라 공간을 다루는 예술

서예는 흔히 ‘글씨를 잘 쓰는 예술’로 생각되지만, 조현판 선생은 서예를 훨씬 넓은 의미의 예술로 바라본다. 붓과 먹이 종이 위에 남긴 흔적은 글자의 모양을 넘어, 쓰는 사람의 호흡과 리듬, 마음의 움직임을 담아낸다.

Q. 이번 〈서예 구도와 착시현상〉 강좌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A. 서예는 단순히 글자를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서예는 음악이자 무용이며 미술이고, 드로잉이기도 합니다. 붓과 먹이 이루어 낸 율동이 종이에 흔적으로 남기 때문에 서예는 예이자 도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서예가 문자를 기록하는 행위를 넘어, 평면 공간에 인간의 사유와 감정을 펼쳐내는 예술이라는 점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글씨가 문학, 금석문, 현판 속에서 어떻게 녹아드는지 살펴보고서 서예가 지닌 삶의 순기능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강좌의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구도’다. 서예에서 구도는 글자를 어느 크기로, 어떤 위치에, 어떤 흐름으로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뜻한다. 이를 장법이라고 한다. 서예는 먹으로 쓴 검은 획만큼이나, 그 사이에 남겨진 흰 여백이 중요하다.

Q. 서예에서 말하는 ‘구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서예의 구도는 단순히 글씨를 쓰는 행위를 넘어, 글자를 어떤 크기로 어떻게 배치할지 계획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장법이라고 합니다. 서예는 먹으로 쓴 글자만큼이나 남겨진 흰 여백이 중요합니다. 흰 공간을 먼저 헤아려 검은 필획을 놓는다는 말처럼, 글씨를 쓸 때는 쓰인 부분만이 아니라 쓰이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검은 획과 흰 여백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획이 여백을 만들고, 여백은 다시 획의 흐름을 드러낸다. 그래서 서예 작품을 감상할 때는 글자 하나하나의 뜻만 읽기보다, 화면 전체의 흐름과 균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illegible]

눈의 착각을 이용한 시각적 균형

강좌 제목에 포함된 ‘착시현상’ 역시 흥미로운 감상 포인트다. 사람의 눈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획의 굵기, 여백의 크기, 주변 글자와의 관계에 따라 같은 글자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수학적으로 정확한 대칭이나 정중앙 배치가 오히려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Q. 서예 작품에서도 착시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서예 작품에서는 글자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대칭이나 정중앙에 맞춰 쓰면 오히려 사람의 눈에는 삐뚤어지거나 불안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은 획의 굵기, 여백의 크기, 주변 글자와의 관계에 따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훌륭한 명필가는 이 착시현상을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수학적 균형을 깨뜨려 시각적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서예에서 착시현상은 눈의 착각을 역이용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작품을 바라보면 글씨가 단순히 멈춰 있는 문자로 보이지 않는다. 붓이 지나간 방향, 먹의 농담, 획과 획 사이의 간격이 하나의 리듬처럼 느껴진다. 조현판 선생은 이러한 감각을 통해 “글씨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Q. 서예를 처음 보는 시민이 작품 앞에서 먼저 해볼 수 있는 감상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서예 감상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먹과 여백이 이루는 공간의 조화와 리듬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전체 흐름인 행기와 여백을 유념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예는 멈춰 있는 그림 같지만, 그 안에는 글씨의 움직임과 시간의 흐름이 녹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을 때 개별 악기보다 전체 멜로디를 먼저 듣는 것처럼, 작품 전체에서 느껴지는 기운과 리듬을 먼저 느껴보면 좋습니다.

강좌 중 실제 예시로는 ‘마산 만날고개 유래비’가 소개될 예정이다. 지역의 장소와 이야기가 담긴 글씨를 통해, 서예가 문학과 역사, 공간의 기억과 어떻게 만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조류방산

한글

[illegible]

옛 그림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다

조현판 선생의 또 다른 강좌인 〈옛 그림의 상징 이야기〉는 우리 옛 그림을 읽는 법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 옛 그림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풍경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린 것에 그치지 않는다. 꽃, 새, 동물, 과일 등 익숙한 소재에는 장수, 복, 건강, 평안, 출세, 화목과 같은 바람이 담겨 있다.

Q. 이번 〈옛 그림의 상징 이야기 1〉 강좌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나요?

A. 우리 옛 그림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풍경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사생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소재마다 고유한 속성과 상징을 부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와 복을 기원하거나 건강과 평안을 염원했던 선조들의 마음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단계를 넘어, 그림 속에 숨겨진 암호 같은 상징을 알아채고 그림을 읽어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강좌의 주된 목표입니다.

옛 선조들이 그림을 선물한 것은 오늘날 축하 카드나 덕담을 건네는 일과도 닮아 있다. 그림 속 사물은 단순한 장식이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상징의 언어였다. 특정 꽃이나 동물, 과일들은 한자 발음이나 문화적 의미와 연결되어 좋은 소식, 장수, 부귀, 자손 번창과 같은 뜻을 품는다.

Q. 옛 그림을 ‘본다’가 아니라 ‘읽는다’는 독화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본다는 것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나 형태를 감상하는 1차원적 행위이지만, 읽는다는 것은 그림 속 사물들이 가진 한자 발음, 역사적 배경, 문학적 은유를 분석해 화가가 숨겨 놓은 메시지를 찾아내는 능동적인 감상을 뜻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발음이 같은 다른 글자를 이용해 뜻을 숨겨 놓는 해음의 언어유희가 많이 쓰였습니다. 메시지를 직접 쓰는 대신, 발음이 같거나 의미가 연결되는 사물을 그림으로 그려 넣은 것입니다.

이처럼 옛 그림을 감상할 때 중요한 것은 서양화의 기준으로 원근이나 사실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림이 가진 상징과 구성의 방식을 이해하는 일이다. 조현판 선생은 옛 그림을 “숨은 행복 찾기”처럼 바라보면 강좌가 더욱 흥미롭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한다.

0. 옛 그림 속 소재들이 지닌 상징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 설명한다면요?

A. 옛 선조들이 그림을 선물한 것은 요즘으로 치면 집들이나 결혼식에 가서 축하 카드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평생 다정하게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세요”라는 마음을 그림 속 상징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이처럼 옛 그림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의 암호였습니다. 그림 속 소재의 의미를 알고 나면, 빗바래 옛 그림들이 새로운 이야기책처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면 더 가까워지는

이번 강좌를 더 흥미롭게 듣고 싶다면,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다. 첫째, 서예는 검은 획만 보는 예술이 아니라 흰 여백까지 함께 보는 예술이라는 점이다. 둘째, 옛 그림은 보이는 대상을 그대로 묘사한 그림이 아니라 상징과 소망을 담은 이야기라는 점이다.

Q. 강좌를 듣기 전에 미리 알고 오면 좋은 감상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서예에서는 글씨만 보지 말고 여백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획과 획 사이, 글자와 글자 사이, 줄과 줄 사이의 흰 공간이 어떻게 보이는지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 그림에서는 서양화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그림만의 숨은 규칙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글자로 읽는다는 마음, 그리고 “옛 그림은 숨은 행복 찾기”라는 생각만 기억해도 강좌의 내용이 훨씬 재미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서예와 옛 그림은 모두 오래된 예술이지만, 결코 낡은 예술은 아니다. 여백의 미, 공간의 균형, 상징을 통한 메시지 전달은 오늘날의 시각디자인과 현대예술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감각이다. 조현판 선생은 옛 그림의 구도와 색채, 여백의 미가 현대의 디자인과 비교해도 세련되고 모던한 면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법고창신,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만든다

조현판 선생이 오랫동안 서예를 해오며 중요하게 지켜온 태도는 ‘법고창신’이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이다.

Q.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서예를 해오시며 가장 중요하게 지켜온 태도나 원칙은 무엇인가요?

A. 법고창신입니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명필가들의 서법을 익히는 것은 기본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삶과 철학을 글씨에 녹여내야 비로소 살아 있는 작가가 됩니다.



이번 「화요명작예술감상회」는 서예와 옛 그림을 어렵고 멀게 느꼈던 시민들에게 새로운 감상의 문을 열어준다. 서예는 반듯한 글씨를 쓰는 일이 아니라, 붓끝의 속도와 압력, 먹의 농담, 여백의 균형을 통해 마음을 드러내는 예술이다. 옛 그림 역시 낡은 역사 자료가 아니라, 선조들의 소망과 유머, 생활 감각이 담긴 이야기의 장이다.

조현판 선생은 “예술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만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전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붓끝의 리듬과 옛 그림 속 상징을 따라가 보는 시간. 7월의 3·15아트홀에서 예술은 조금 더 가까운 감각으로 시민 곁에 다가온다.

3·15아트홀 「화요명작예술감상회」는 문화예술을 어렵게 느끼는 시민들이 작품을 보다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양강좌 프로그램이다. 매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예술 작품과 문화 현상, 인문학적 사유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낸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를 넘어, 작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일상 속 문화 감수성을 넓히는 시간이 되고 있다. 하반기 강좌는 서예를 비롯해 건강인문학, 전통주, 프랑스 문화예술, 영화 인문학 등 폭넓은 주제로 이어진다. 익숙하지만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술과 생활문화의 세계를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볼 수 있어, 문화예술을 처음 접하는 시민에게도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화요명작예술감상회 교육 프로그램

1주 7. 7. (화)
[서예(書藝)의 구도(構圖)와 착시현상(錯視現象)]

2주 7. 14. (화)
[옛 그림의 상징 이야기 (1)]

3주 7. 21. (화)
[옛 그림의 상징 이야기 (2)]

4주 7. 28. (화)
[낙관법(落款法)의 이해]

창원위령탑

춤(발레), 몸보다 뇌를 더 많이 쓰는 예술

글. 배귀영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발레는 몸을 통해 생각을 표현하고 움직임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뇌와 신체가 함께 만들어 내는 종합예술이다. 많은 사람들은 발레를 떠올리면 유연한 몸, 높은 점프, 아름다운 자세와 같은 신체적인 능력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발레는 단순히 몸을 사용하는 예술이 아니다. 무대 위에서 완벽한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 무용수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한다. 어쩌면 발레는 몸보다 뇌를 더 많이 사용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무용수들의 발레 수업을 떠올려 보자.

무용수는 음악을 들으며 박자를 맞추고 안무 순서를 기억하며 공간 속 자신의 위치와 동선 등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해야 한다. 동시에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시선과 표정까지 관리한다. 하나의 동작을 수행하는 순간에도 뇌는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춤은 기억력, 집중력, 공간 인지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발레는 정해진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하므로 동작 암기를 통한 기억의 기능적 이해와 운동 계획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안무를 익히고 수정하며 반복하는 과정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한다.

‘기억은 사라져도 나는 발레리나입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1967년 최고의 프리마 발레리나였던 마르타 곤잘레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마저 기억에서 사라진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였다. 요양병원을 찾은 아들이 그녀에게 헤드셋을 끼워주며 ‘백조의 호수’ 음악을 들려주자 그녀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알츠하이머 환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예전 무대 위에서의 반짝이는 눈빛, 감정 표현과 몸짓으로 작품 속 주인공 공의 발레 동작을 그대로 묘사하며 몸과 뇌 속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체화된 기억 위주로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은 2시간에 이르는 전막 발레의 순서를 익히기 위해 반복적으로 훈련한 결과, 동작이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된 것이다. 다만 이 사례는 발레가 알츠하이머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유전적 요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한 뇌 손상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함도 함께 시사한다.

과거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슬로건을 모태로 태권도의 조기교육 열풍이 생겨났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K-컬처가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급부상하며 한국의 모든 문화예술이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최고의 문화강국으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발레의 조기교육 열풍을 불러오고 있다. 아이들의 모든 움직임은 두뇌 발달을 돕는다. 그러므로 발레를 배우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한 동작을 따라 하는 것조차 어려워하지만 반복 훈련을 통해 작은 성취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 동

작을 연결하고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며 자신의 몸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 나간다. 이 과정은 단순한 신체 발달뿐 아니라 동작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집중력, 자기 통제력, 자기 효능감 또한 함께 성장하게 된다.

발레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아름다운 바른 자세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동작 하나를 배우기 위해 집중하고 실수를 수정하며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사고력과 인내심,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키워 나간다. 즉, 무대 위에서 우아한 동작 뒤에는 수많은 생각과 판단, 그리고 끊임없는 훈련이 숨어 있는 것이다. 발레의 아름다운 동작을 완성하는 것은 근육의 힘만이 아니다. 그 움직임을 설계하고 기억하며 표현하는 뇌의 힘이 있기에 발레는 더욱 깊고 가치 있는 예술이 될 수 있다. 즉 발레는 몸을 단련하는 교육을 넘어 뇌를 성장시키는 예술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춤은 더욱 깊고 가치 있는 예술이 될 수 있다. 즉 발레는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무용치료 분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용동작치료(Dance Movement Therapy)는 움직임을 통해 신체적·정서적·인지적 기능의 향상을 돕는 치료 방법이다. 실제로 치매 환자나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춤 활동이 기억력과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우울감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정서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움직임이 하나의 언어가 되어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춤은 다른 운동과 달리 음악, 감정, 기억, 신체 움직임을 동시에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단순한 근력 운동이나 반복적인 신체 활동보다 더 복합적인 뇌 활동을 요구한다. 어떤 연구자들은 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복합적인 인지 활동 중 하나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비단 발레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를 통해 표현하는 신체 활동인 춤은 마음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몸치’라는 사전적 의미는 간단한 몸놀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눈으로 보는 춤을 마음에서 온전하게 느끼지 못하고 몸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작동 원리 때문이다. 몸이 뻗뻗해도 음악을 듣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마음도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와 맞닿아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춤 연습이 신체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며 주의력과 반응 능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발레(춤)가 뇌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해 보겠다.

사례 1) 애모리 의과대학에서 파킨슨병이 심하지 않은 58명의 환자들에게 13주 동안 주 2회, 1시간의 발레 기본 수업을 진행한 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들은 걷는 거리, 보폭, 균형 같은 근육 운동 능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분, 인지, 삶의 질도 나아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또한 발레 수업이 신체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며 주의력과 반응 능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종종 공간 지각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데, 춤을 춘 환자들이 공간 지각 능력이 명백히 호전되었고 병의 증상이 감소되었다고 했다.

사례 2) 프론티어스에 발표된 인간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노화의 징후를 늦추는 것에 관해 춤이 전통적인 체력 단련 방식보다 더 나은 형태의 운동일 수 있다고 하였다. 감각 운동 요구는 동작 기억하기, 들기, 박자 인식, 음악의 리듬을 느끼고 혼자 움직이거나 음악에 맞추어 무리 지어 움직이는 동작 등 운동 자극뿐만 아니라 감각에 의해 촉발된 신체 활동을 통해 치매에 걸릴 위험을 줄이는 것, 그리고 뇌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사이클링, 골프, 수영, 테니스를 포함한 11가지 다른 신체 활동 중에서 춤을 추는 행위만이 참가자들의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가벼운 인지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10개월간 발레 수업을 실시한 결과 사고력과 기억력이 월등히 향상되었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뻗뻗함, 떨림, 균형 감각, 조정력 저하와 같은 일부 운동 증상을 완화시키며 걸음걸이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고 인지 건강에 중요한 뇌의 특정 부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춤의 움직임이 모든 방향으로의 확장된 움직임을 수반하며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달리기, 수영, 다른 추진력을 요하는 형태의 신체 활동은 리듬과 가속도를 사용하고 다양한 몸의 움직임을 요구하지만 춤은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속과 감속이 있다. 춤 추는 것은 바쁜 도시 사이를 달리는 것과 같아서 모



든 출발과 정지, 방향 변경은 많은 지면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1톤의 연료를 태울 만큼 강한 에너지를 소모한다. 2시간의 전문적 발레 클래스(barre work, center work)를 소화하는 무용수들은 축구 선수들의 전·후반 강렬한 경기를 소화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했다.

사례 3) 만성 현기증과 파킨슨병에 대한 치료 개발을 연구하고 있는 영국 임페리얼 뇌신경과학 연구팀이 발레 작품 ‘백조의 호수’ 중 흑조를 연기하는 발레리나가 32바퀴 회전(fouetté-turn)을 하고도 전혀 흐트러짐 없이 다음 동작을 곧바로 수행하는 것을 눈여겨봤다. 그리고 회전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발레리나들의 뇌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발레리나의 소녀의 특정 부분이 일반인에 비해 작은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어떻게 균형을 잡고 바르게 걷는가를 새롭게 학습함으로써 뇌 기능 발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발레 동작을 기반으로 한 만성 현기증 치료 연구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고 KBS 뉴스에서 보도한 바 있다. 참고로 영국 국민들은 4명 중 1명꼴로 만성 현기증을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와 사례들은 발레와 춤이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뇌의 인지 기능과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춤은 기억하고, 판단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뇌와 몸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복합적인 예술 활동이다. 특히 발레는 정확한 동작 수행과 음악적 이해, 공간 인지, 감정 표현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높은 수준의 두뇌 활동을 요구한다.

우리는 흔히 발레를 우아한 몸의 예술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무대 위 아름다운 동작 뒤에는 수없이 반복된 학습과 기억, 순간의 판단과 집중, 그리고 감정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뇌의 치열한 활동이 존재한다. 발레리나의 발끝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하며 창조하는 뇌인 것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을 지배하는 시대일수록 인간만이 가진 감각과 창의성, 공감 능력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춤은 신체를 움직이는 동시에 사고하고 느끼며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발레는 단순한 취미나 기능 교육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 감성과 인지를 함께 성장시키는 전인적 예술 교육의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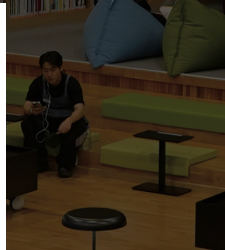
오늘날 발레 교육이 어린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발레는 아름다운 자세를 만드는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집중력과 기억력, 자기 통제력, 창의적 사고를 길러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무용 치료와 재활 분야에서도 활용되며 예술이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발레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자세와 화려한 테크닉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기억하며 성장하는 인간의 뇌를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발레는 몸을 위한 예술이기 이전에 생각하는 인간을 위한 예술이며 몸과 뇌가 함께 만들어 내는 가장 아름다운 지적 예술이다.

버려진 공간의 화려한 변신, 업사이클링 문화공간

글 윤해리

바야흐로 '업사이클링'의 시대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지거나 쓰임을 다한 자원에 새로운 디자인과 가치를 더해 다시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에는 물건을 넘어 공간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오래된 건물, 폐교, 창고, 공장처럼 한때의 역할을 마친 공간들이 문화와 예술, 휴식과 배움이 어우러진 새로운 장소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7월호에서는 이러한 공간 업사이클링의 흐름 속에서 창원의 대표적인 복합 독서문화공간으로 자리한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을 찾아가 본다. 구 구암중학교 체육관을 활용해 조성된 이곳은 책을 읽는 도서관을 넘어, 시민이 머물고 쉬고 문화를 만나는 열린 공간으로 변화해 왔다.



어둠 속에서 비로소 선명해지는 감각

어둠은 많은 것을 가려주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다른 감각들을 더 예민하게 깨워낸다. 시야를 가득 채우던 낮의 자극적인 색채와 시각적 소음이 짙은 푸른빛 속으로 가라앉으면 땀을 스치는 공기의 온도와 발 끝에 닿는 지면의 묵직한 질감이 비로소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은 밤의 감각의 온전히 누리기에 마산 앞바다를 너르게 품은 '3·15 해양누리공원' 만큼 완벽한 무대는 없다.

넓은 체육관, 책의 바다로 다시 열린다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은 옛 학교 체육관의 구조를 살려 조성된 공간이다. 일반적인 도서관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낮은 서가와 조용한 열람실 대신, 이곳에서는 높은 천장과 넓은 홀, 벽면을 따라 이어지는 대형 서가가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개방감'이다. 체육관이 지녔던 넓은 공간감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책과 조명, 휴식 공간을 만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한때 학생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로 채워졌던 공간은 이제 책장을 넘기는 소리, 강연과 공연,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걸음으로 다시 채워지고 있다.

이 변화가 흥미로운 이유는 오래된 공간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지 않았다는 데 있다. 체육관의 높은 층고와 넓은 구조는 도서관의 개성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그 위에 책과 문화 프로그램이 더해지며 새로운 역할을 갖게 되었다. 공간 업사이클링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구조와 기억을 오늘의 쓰임에 맞게 다시 읽어내는 것이다.

층마다 다른 방식으로 만나는 책과 쉼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다. 층마다 성격이 다른 공간을 두어 방문객이 자신의 목적과 취향에 따라 머무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층은 어린이와 가족, 다양한 체험을 위한 공간이 중심을 이룬다. 동화방, 레고방, 보드방, 웹툰방, 힐링방 등 테마별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책을 어렵거나 조용히 읽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느끼지 않게 한다. 아이들은 놀이와 독서를 자연스럽게 오가고, 어른들은 잠시 쉬어가며 일상 속 독서의 감각을 되찾을 수 있다.

2층은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의 중심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넓은 홀과 대형 서가, 편안한 좌석이 어우러져 복합 독서문화공간의 분위기를 만든다. 이곳에서는 책을 읽는 사람, 노트북을 펼쳐 둔 사람, 가족과 함께 둘러보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정숙함을 강조하던 과거의 도서관과 달리, 이곳의 독서는 조금 더 유연하고 일상적이다.



3층은 도서관 전체를 내려다보며 머무를 수 있는 테라스형 열람공간이다. 위에서 바라본 도서관은 하나의 풍경처럼 다가온다. 벽면을 채운 책들, 곳곳에 앉아 있는 시민들, 공간을 밝히는 조명이 어우러지며 도서관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장면이 된다.

책을 넘어 문화가 흐르는 공간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의 매력은 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독자와 함께 공연, 강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책을 빌리고 읽는 공간을 넘어, 시민이 문화를 경험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은 오늘날 도서관의 변화된 역할을 잘 보여준다. 도서관은 더 이상 조용히 책만 읽는 장소가 아니다. 아이에게는 책과 놀이가 만나는 첫 문화공간이 되고,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관심사를 발견하는 공간이 되며, 어른에게는 일상 속 휴식과 배움의 장소가 된다. 특히 2026년 새 단장을 거치며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은 다시 한 번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책과 휴식, 놀이와 체험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정비되면서 시민들이 더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오래된 체육관에서 출발한 공간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계속해서 새롭게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곳은 공간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현재진행형으로 보여준다.

공간의 가치를 바꾸면 일상이 달라진다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을 둘러보고 나면, 공간 업사이클링이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고쳐 쓰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중요한 것은 건물을 얼마나 새롭

게 꾸몄는가가 아니라, 그 공간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는가에 있다. 옛 체육관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 안에 책이 들어오고, 시민의 발걸음이 모이고, 문화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이름과 역할을 갖게 되었다. 학교의 기억은 도서관의 깊이가 되었고, 비어 있던 공간은 시민들이 머무는 문화적 장소가 되었다.

무더운 7월,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어도 일상 가까이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날 수 있다. 높이 쌓인 책의 벽 사이를 천천히 걷고,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아 책 한 권을 펼쳐보자.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은 쓰임을 잃은 공간이 어떻게 다시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소다.

책의 바다를 거니는 일은 곧 도시의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가능성 사이를 걷는 일이기도 하다. 오래된 공간이 새로운 문화가 되는 순간, 우리의 일상도 조금 더 넓고 풍요로워진다.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2길 24-1
- 운영시간
1층 주요 공간: 09:00~18:00
2층·3층 열람 공간 :
평일 09:00~21:00 / 주말 09:00~18:00
- 휴관일 : 법정공휴일, 관장이 지정한 날, 매월 네 번째 월요일
※ 일요일은 정상 운영하나,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관
- 주요시설
복합 독서문화공간, 테라스형 열람공간,
어린이·청소년 독서공간, 구암홀, 파도홀, 카페테리아 등

한국 전통건축은 예술일까?

글. 신 건 수 (경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한국전통건축이 예술일까?’는 따져봐야 할 질문이다. 이 질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하나는 예술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전통건축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이다. 기본적으로 예술과 미학의 개념 자체가 서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한국전통건축을 검토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 연재가 시작된 질문, 즉 ‘건축이 예술일까?’는 서구식 예술 정의에서 출발했으므로, 이를 한국의 건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한반도에서 건축은 그 자체로 미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미는 사물에 있기보다 인간 안에 있었으며, 특히 조선시대의 율리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래서 선조들이 건축에 대한 미학을 독립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건축 대상, 즉 오브제를 바라보는 서구적 가치에 익숙하다. 그렇기 때문에 ‘파사드’, ‘구조미’, ‘공간’ 등 시각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요소에 익숙한 우리에게 한옥은 쉽게 공명하기 어려운 대상처럼 보일 수 있다. 한국전통건축에서 ‘예술’과 ‘건축’의 결합은 지금까지 다루어 온 사례와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예술 서술은 서구적 관점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고, 본 글 역시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전통건축의 미적 가치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연재를 거치면서 건축이 예술이 되는 가능성을 ‘기능이나 용도를 넘어선 가치 추구’로 확장해 보았다.

한국전통건축의 가치 지향은 당대에 건축 자체가 아니라 인간으로 향했고, 그만큼 건축의 경계는 흐릿하다. 우리는 건축예술로 다루어야 할 대상의 모호함을 인정한 채,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한국전통건축의 예술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당대의 관점에서 건축을 추적하고, 이어서 현재 우리의 시각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전통건축은 많다. 유명한 사례로는 국보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밀양 영남루, 통영 세병관이 있다. 이 밖에도 무기연당 같은 정원, 창원의집 같은 반가, 남계서원, 단성향교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있다. 사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할 뿐, 잘 알려진 건축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한옥의 연속성을 담은 공간 속에 살고 있다.



중요한 건축이든 일상적인 건축이든, 그 건축적 가치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현재의 건축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는 많은 건축가들이 고민하는 문제이다.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처럼 전통건축의 조형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김종업의 작품이 그 예다.

최근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 한옥을 재해석한 건축도 만날 수 있다. 매우 실험적인 사례도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전통건축 계승은 여전히 외양만 비슷하게 만드는 데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일제강점기의 철도 역사 건물, 대표적으로 수원역, 전주역, 서평양역부터 논란이 많았던 현 국립민속박물관, 현재의 경북도청사에 이르기까지, 또한 북한의 평양대극장, 옥류관, 인민대학습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옥을 담고자 했으나 그 결과는 한옥의 피상적인 적용에 머물렀다.

즉, 전통건축을 막연히 오래된 유물의 당위성으로 다루거나, 한옥의 일부 요소를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은 자주 발견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이며, 여기서 포착할 수 있는 미적 가치를 해석하고 이를 건축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림 1. 해인사 전경

(출처: 한국교육방송공사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그림 3. 국립민속박물관 본관 전경

(출처: Isaac Crumm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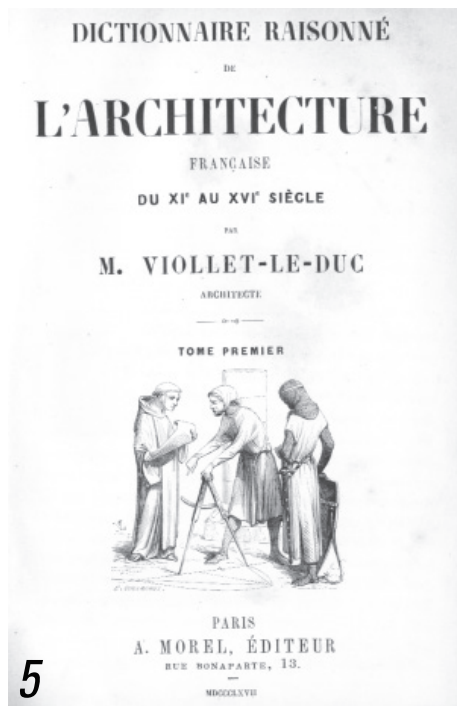
그림 2. 함양 남계서원 (출처: 국가유산청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그림 4. 평양대극장 (출처: Laika ac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이와 비교되는 것이 서구에서 역사건축을 연구하고 미학을 발전시킨 과정이다. 그 출발은 19세기 제국주의 시기에 국가 정체성에 부합하는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나타난 역사주의 건축이다. 이 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난 사례가 스탈린과 히틀러 치하의 건축, 특히 신고전주의의 건축이다. 그러나 건축역사학자나 건축가들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다. 국가 이념에 종속되기도 했지만, 역사건축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건축 미학의 평가로 발전시켰다. 중세건축이 대표적이다. 고전건축이 지배적이던 시기에 낡은 건축으로 취급받던 중세건축의 가치를 드러낸

문인 빅토르 위고가 있었고, 이를 통해 과거를 복원하는 건축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었다. 이후 중세건축은 자주 상세히 조사되었고, 사전으로 정리되기도 했으며, 그 안에서 핵심 가치가 도출되었다. 특히 비올레르뒤크에 의하면 고딕건축의 본질은 첨단 기술인 뼈대 구조에 있으며, 그는 건축을 유기적 결합 관계로 규정했다.

20세기 초 현대건축이 태동했을 때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구조 변화와 건설 재료에 대한 기술적 관점의 수용이 가능했던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 계승은 이후 미국 시카고로 이어진다. 현대건축에서 구조는 구조미로 확장되는데, 이는 뼈대 구조를 미학의 차원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유럽 건축가들이 고딕건축에서 가치를 추출한 것처럼, 우리도 한국 역사건축에서 발견할 것은 많다. 다만 아직 연구와 미학이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넘어야 할 문턱이 높다.



한국전통건축의 예술적 검토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역사학자와 건축가 사이의 간극을 볼 필요가 있다. 역사학자는 전통건축의 실증적 사실에 기반해 연구한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자료와 건축 유산을 통해 재구성한다. 그러나 건축 자체에 대한 기록은 부족하다. 조선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록은 매우 적어지고, 고려시대로 가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남겨진 것은 유물과 유구뿐이며, 이를 통해 건축 자체의 형태와 구조를 추적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최근 역사학자들의 연구 성과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반면 건축가는 전통건축을 주관적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요소를 추출한다. 이를 확장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국 한국전통건축에 대한 개인적 해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역사 연구를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일은 쉽지 않고, 미학적 요소를 발굴하는 해석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가는 전통건축을 피상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많은 건축가, 어찌 보면 한국 땅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건축가는 근대공간, 즉 서구적 공간을 벗어난 원형으로서의 전통공간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지엽적인 부분을 과장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해석으로 보이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근거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여러 번 겪은 바로는 학자와 건축가 사이의 입장 차가 매우 깊다. 따라서 역사적 근거와 건축적 해석의 다양성을 매개해 줄 미학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건축에 대한 미학적 가치를 도출하려는 저술은 있었다. 2012년에 나온 보고서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1): 현대 한옥미학의 기원』은 이 맥락을 잘 보여준다. 이 보고서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옥이 어떻게 미적으로 규정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는 온갖 다채로운 상황이 발생했다. 초기부터 외부적 시선, 즉 서구적 미학 개념으로 시작되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나타났다. 서구처럼 특정한 정의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단어를 찾으려 했지만, 그 표현은 추상적이고 모호했다. 이는 우리가 서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전통건축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서구는 본질론에 가깝다. 사물을 규정하고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건축은 독립적인 미학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한국적인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하면서 ‘한국성’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 빈 곳을 채워 줄 강력한 단어 하나를 갈망해 온 것은 아닐까. 마치 ‘너희는 그것, 우리는 이것’이라고 대응하고 싶은 욕망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한국전통건축 미학 서술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출발은 외부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본인 세키노 타다시(関野貞)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서양인 안드레 에카르트(Andre Eckardt)가 한국 예술 전반을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이 그 출발점이다. 물론 이들의 시선은 식민사관이거나 서구적 관점에 기반한 것이었다. 초기 한반도를 규정하는 미적 판단이 외부인에게서 시작되었다면, 이를 내면화하고 확장하는 과정은 고유섭, 최순우, 김원룡 등 한국인 연구자들로 이어졌다. 보다 건축적인 관점이 도드라진 것은 일련의 한국전통건축 사건과 관련된다. 국립부여박물관의 왜색 시비(1967), 국립중앙박물관 현상공모 과정과 당선작(1973)에서 불거진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후에도 김기웅의 독립기념관, 김석철의 예술의전당, 승효상의 수졸당, 우규승의 환기미술관, 조성룡의 이응노기념관, 최근의 경북도청사 등이 전통건축의 현대적 계승을 둘러싼 논쟁 혹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건축미학 서술은 윤장섭, 안영배, 주남철, 김동현, 장경호, 김성우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글들은 한국건축이 서구 혹은 이웃 아시아 국가의 건축과 어떻게 다른지, 즉 한국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따라서 한국건축의 미적 속성을 드러내려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분적 특징을 전체로 보는 데 머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어쩌면 당연하다. 한국전통건축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전통건축 서술은 어느 정도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의지 함께 경험적으로 파악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석 대상 건축물도 한정되어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서구 개념을 활용하거나 그에 대응하는 용어들이다. 예컨대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 ‘고전미’, ‘비대칭의 대칭’, ‘자연스러움’, ‘불규칙의 질서’ 등이 그것이다. 이는 서구의 대칭적 미학, 즉 심메트리와 대비시켜 차이를 드러내고자 한 표현이다.

또한 주변국, 특히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규정도 있었다. ‘순박’, ‘소박’, ‘구수함’, ‘인간적인 척도’ 등은 상대적으로 작고 소소한 것에 대한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적 규정으로 나타나며, 동시에 지금 남아 있는 건물로 한정된 제한적 표현이기도 하다.

그림 5. 비올레-르-뒤크 『Dictionnaire raisonné de l'architecture française』, tome 1 제목면
(출처: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그림 6. 비올레-르-뒤크 『Entretiens sur l'architecture』, 콘서트홀 도판
(출처: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그림 7. 독립기념관 (출처: NYPD9990 / Wikipedia (CC BY-SA 3.0))

그림 8. 경상북도청사
(출처: Hyolee2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그렇다면 대칭을 완벽하게 구현하고자 한 경복궁 근정전 같은 규범적 건물이나, 압도적 규모였으나 고려 시기에 사라진 황룡사 구층목탑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형태적 표현으로는 ‘곡선미’, ‘너그러움’, ‘익살’, ‘울동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붕의 곡선미는 팔각지붕에서 잘 나타나지만, 맞배지붕이나 우진각지붕에서는 없거나 약하다. 즉 어떤 표현은 일부 건물에만 한정되며, 다른 건물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다.

따라서 이를 한국전통건축 전체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비극적 감정과 결부된 ‘비에미’, ‘섬약미’, ‘적조’ 등의 표현은 한반도에 있던 여러 감정 가운데 일부를 부각해 슬픔, 즉 한을 당연한 정서처럼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러나 이 역시 최근 다시 부각되는 흥의 정서를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 결국 이러한 시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제국들이 앞다투어 국가 정체성을 찾고 이를 건축으로 구현하려 했던 모습의 흔적처럼 보인다.



그림 9. 경복궁 근정전 (출처: Basile Morin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그림 10. 황룡사 9층 목탑 (출처: Historiographer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그림 11.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전면 (출처: 국가유산청))

그림 12.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마루 (출처: 국가유산청))

그렇다면 한국 역사건축을 어떻게 미학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까? 오랜 역사의 다양한 내용을 하나의 관점으로 수렴하는 방식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과거의 국가 이념이 설정한 ‘한국성’이라는 빈 그릇에 무엇인가를 채우려는 무리수도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개별 작품만으로는 미학적 가치의 공통성을 추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기준의 ‘한국’이라는 동일성의 범주로 규정하는 대신, 역사적 층위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던 집단적·공동체적 미학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범위로 역사를 서술한 사례로 케네스 프램튼의 『현대건축』을 들 수 있다. 그는 일정한 흐름에 맞추어 모자이크식으로 서술한다.

시기적으로 겹치거나 동일 건축가와 건축이 중복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다양하게 펼쳐진 건축의 흐름을 볼 수 있다. 너무 산만해 독자가 재정리해야 하는 한계는 있지만, 과거 역사서술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하나의 틀에 맞추려던 역사를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좀 더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 개념이다. 즉 모두가 공유하는 본질적 속성은 없지만,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다양한 유사성의 집합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선 연구자들의 성과를 다층적으로 본다면, 한국전통건축의 미학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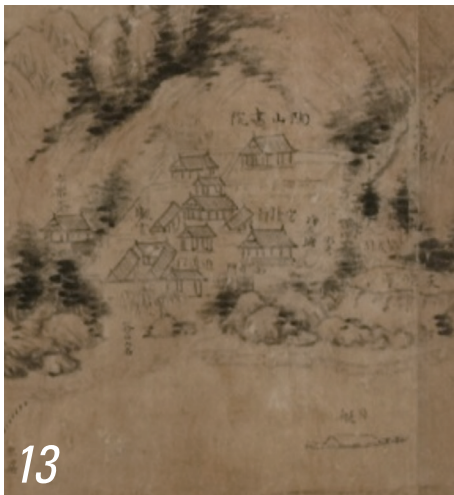
두 번째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 건축의 미학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시각에서 시대적 상황이나 자연, 이념, 생활 등의 가치 맥락을 제거하거나 덜 고려한 채 건축 자체를 보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주관성과 혼동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건축 요소, 즉 지붕, 기둥, 벽, 바닥 등을 분석해 독립적인 건축 자체만의 미학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건축을 예술적 관점에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미학적 이해를 인과 관계적 근거, 예를 들어 자연과의 조화등으로 환원하지 않고, 건축 자체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은 한국전통건축 자체의 현재적이며 보편적인 가치를 발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기록 뒤에 숨겨진 미학적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건축 자체를 보는 방식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장인들의 미학이나 당대에 언급되지 않은 비주류적 시각을 발견하게 한다. 현재의 관점에서 발견한다는 점에서, 우리 시대 건축가들이 적용하거나 재해석할 수 있는 요소도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축 자체를 보는 방식은 첫 번째 관점과 함께 전통건축을 다층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한다.

위 두 가지 관점으로 여기서 전통건축의 예술적 차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건축을 지고한 가치, 예컨대 자연이나 삶의 태도 등을 연결해서 특정 시기 공통된 미학 태도를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현재의 관점에서 역사적 맥락을 배제하고 건축 자체만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미적 가치를 찾고자 한다. 각각 두 개의 건물을 살펴본다. 널리 알려진 건물과 경남 지역의 건물을 하나씩 함께 분석해, 확장된 의미의 예술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한국전통건축의 예술적 가치를 탐색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완성된 글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

우선 당대의 관점에서 조선 중기 선비의 존재미학과 주거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건축예술을 살펴본다. 조선시대의 삶의 방식은 건축에 담기며, 행동과 사고뿐만 아니라 미학과도 맞물린다. 유학자의 집은 특히 그러하다. 정신적 삶을 추구한 일상 건축은 화려함보다는 절제 속에 다양한 장치를 담고 있다. 한옥은 당호라 불리는 집의 이름을 지닌 경우가 있다. 이는 집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집 자체보다는 집에 사는 사람 혹은 집을 통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즉 행위를 다루는 것이다. 특히 조선 중기부터 성리학과 가옥은 밀접하게 결합한다. 그럼에도 건축 의도를 명확히 서술한 경우는 매우 드물어 건축가적 입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사용자로써 유학자가 집에 대해 지녔던 태도는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전체에서 건축가적 지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는 유학자 가운데 자신의 집을 어떻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남긴 인물이 퇴계 이황이다.

퇴계는 여러 차례 자신의 집을 건축하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으며, 그 마지막 집인 도산서당에 대해서는 『도산기(陶山記)』와 『도산잡영(陶山雜詠)』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퇴계가 50세 되던 해에 정계에서 물러나 도학(道學), 즉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고자 하는 실천과 제자 양성을 위해 먼저 지은 곳이 계산서당이다. 이곳에서 그는 율곡 이이와도 만남을 가졌다. 이후 새로 지은 곳이 도산서당이다. 관직생활에서 물러난 퇴계는 자신의 거처인 도산서당을 짓고, 제자를 가르치는 학사 건물인 농운정사도 함께 지었다. 이것이 나중에 도산서원으로 확장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도산서당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의 미적 감각을 볼 수 있다. 세 칸의 집에서 부엌을 제외하면, 완락재라는 온돌방은 책을 읽고 사색하는 공간이며, 마루인 암서헌은 완전히 개방된 열린 공간이다. 퇴계는 충분히 더 크고 화려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도학을 실천하는 데 가장 적합한 소박한 공간을 선택했다. 장식 없고 단출한 마감은 검소함을 실천하며 내적으로 수양하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퇴계가 남긴 글에서 건축 의도와 이를 통해 추구한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정명(正名), 즉 자신이 만든 건축의 개별 공간뿐 아니라 주변 자연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인 행위는 그 공간에 자신의 수양론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나아가 그는 주변 자연 경관 스물여덟 곳에 이름을 붙여 도학적 수양의 공간으로 전환시켰다. 자연이 원래부터 그런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퇴계의 명명과 시를 통해 그런 장소가 된 것이다. 주변 사물을 전유하여 자신과 일치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수양하는 미학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집은 이제 주변 자연으로 확장되며 도학 실천의 영역이 된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자기수양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철학자 푸코는 말년에 고대 그리스의 자기수양에 관심을 두고 이를 분석했다. 그는 몸 관리, 욕망 관리, 건강 관리, 하루 관리, 관계 관리 등 다양한 테크네(technē, 실천), 즉 실천을 통해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형성하는 실존의 미학으로 보았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신전뿐만 아니라 아고라나 스토아 같은 공적 정치 공간(Polis), 집이라는 사적 공간(Oikos), 운동을 하는 경기장과 뜰, 문화 활동을 하는 극장 등 모든 공간은 삶의 미학적 태도와 연계된 공간이었다.

도산서당은 눈에 보이는 소박함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퇴계가 구상한 공간에 이름을 부여하면서 만든 자기 수양과 제자 수양의 장소이다. 퇴계의 표현으로는 거경(居敬), 즉 일상의 모든 순간, 앉을 때와 걸을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에도 경(흔들리지 않고 몸과 마음이 깨어 있는 정제된 상태)을 유지하는 자기배려의 테크네이다. 따라서 도산서당을 살펴보는 이유는 조선 중기 이후 유학자의 집이 도학의 실천이라는 존재미학을 담은 건축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이 관점으로 다른 건물도 함께 볼 수 있다.

함양 일두가옥에서는 도학 실천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지만, 한옥에서 보이는 작은 요소들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일두가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사랑채에는 강단과 굳은 결심의 심리적 상태가 건축적으로 드러난다. 마당보다 아주 높게 올라간 마루, 그리고 그 옆으로 한층 더 높이 올라간 누마루는 팔작지붕의 추녀마루까지 높이 들어 올리며, 높은 이상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건축적으로 드러낸다. 일두 정여창은 퇴계보다 약 50년 앞서 도학을 실천했으며, 문묘에 함께 배향된 동방오현 가운데 한 명이다.

일두가옥은 그의 후손이 살던 곳으로, 엄격한 도학 실천 의지가 건축에 담겨 있다. 퇴계의 도산서당이 자신에게 맞춘 행위의 건축이라면, 일두가옥은 후손들이 세대를 거치며 삶의 철학을 이어 전승하려는 의지를 담은 건축이다. 즉 도산서당이 지어지는 시점에 모든 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상된 건축이라면, 일두고택은 단번에 만들어진



그림 13. 강세황 필 도산서원도 상세 (출처: 국가유산청)

그림 14. 정선 필 계상정거도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 15. 일두고택 사랑채 (출처: 국가유산청)

그림 16. 일두고택 안채 마당 (출처: 국가유산청)

그림 17. 병산서원

(출처: limhyungkyu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그림 18. 병산서원 만대루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에듀위키)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그 유지를 따라 사후에 건설하고 추가하면서 점차 채워 간 건축이다. 한편, 사랑채 후면으로 가면 안채와 만나는데, 이곳은 마당과 마루의 높이 차이가 낮아 일상생활을 불편함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두가옥은 사랑채를 통해 세대를 이어 가며 삶의 태도를 건축에 담고 이를 유지하려는 전승의 미학적 태도가 반영된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건축 자체를 보자. 건축 자체로 본다면 한국건축은 무엇으로 나타날까? 기존의 한국건축 미학 서술은 자연과의 관계, 입지, 공간, 형태를 중심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를 잠시 벗어나 건축물 자체만을 다루어 미학적 요소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자연과 서원 기능으로 널리 알려진 병산서원 만대루에서 건축만을 추출해 살펴보자. 그 안에서는 어떤 감각적 요소가 작동하고 있을까? 만대루만 바라보면 아주 단순한 구조처럼 보인다.

외부에서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8쌍의 기둥이 배열된 모습은 언뜻 보면 엄격한 신전처럼 보인다. 입교당에서 바라보는 만대루는 완벽하다. 병산서원의 출입구인 복례문에서 만대루 정중앙을 축으로 일직선상에 위치한 입교당은 만대루가 가장 잘 보이는 위치이다.

완벽한 네 쌍의 기둥이 좌우대칭으로 배치되고, 정중앙 아래 기둥 사이로 복례문이 보이며, 용마루 양 끝이 합각을 위해 살짝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현수 곡선도 대칭적으로 우아하다. 마치 궁궐 건물을 보는 듯 균질한 기둥, 명료한 간격, 그 뒤의 구불구불한 풍경과 대비되는 정제된 형태가 나타난다. 여기까지가 입교당에서 보는 모습이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된다. 입교당에서 보이는 모습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균질함 속에 감춰진 역동성과 변주를 만나게 된다. 이 모습은 만대루 누각에 앉아 있을 때 잘 드러난다. 수평 보로 사용된 목재의 모양은 모두 제각각 휘어져 있다.

약간 휘어진 서까래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보였던 엄격함은 사라진다. 들어서기 전의 구조적 엄격함과, 들어서기 뒤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허락하는 분위기 사이에 이중적인 대비가 만들어진다. 병산서원은 학문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기 만대루는 본래 쉬는 공간이다.

만대루 아래 기둥도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 윗기둥의 정렬된 모습과 달리 아래 기둥은 역동적이다. 형태는 구불 거리는 형태로 위쪽 보와도 비슷하다. 하지만, 먼 거리에서는 수직적 구조가 수평적으로 연결된 건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부재의 비균질성과 공간 분위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분절된 건물처럼 보인다. 그래서 구조적 흐름은 수직적이지만, 공간 분위기는 수평적 분절이다. 특히 경계를 이루는 계단까지 통나무 하나로 만들어져,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입교당에서 엄격한 건축은 프레임으로 보여 자연(병산)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만대루 안에서 자유로운 보와 서까래 그리고 아래 기둥은 낙동장과 병산과 겹쳐보인다. 이는 우리가 서구건축에서 익숙한 미스 반 데어 로에의 판스워스(Farnsworth) 주택과 여러모로 비교된다. 미스의 건축이 기둥을 공간 밖으로 밀어내어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했다면, 만대루에서는 기둥과 보의 형태가 공간을 층으로 분리하며 만들어 낸다. 실제 아래 기둥과 위 기둥은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보와 서까래까지 포함하면, 각각은 다른 영역을 담당하며, 서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만대루는 다양한 형태의 부재 사용과 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시각적 즐거움, 혹은 변주는 만대루가 만들어 내는 다채로운 공간 분위기를 보여준다.



병산서원과 다른 분위기로 비교할 만한 것이 통영에 있는 삼도수군통제영의 객사인 세병관이다. 세병관은 언뜻 보면 '앞면 9칸, 옆면 5칸'이라는 설명만으로 강렬하지만 단순한 공간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층적 공간이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옆면 5칸, 즉 6개의 기둥은 양 끝단에만 있다. 양 끝단의 바로 안쪽 열은 둘 다 기둥이 4개로 줄어든다. 나머지 중심부는 모두 5개의 기둥이 6열로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양 끝단의 6개 기둥 중 중앙의 1개 기둥은 내부 개방된 공간에서 닫는 역할을 한다. 바로 그 안쪽, 즉 기둥이 4개인 열의 좌우 빈 공간은 6칸 규모의 무주공간을 만든다. 여기에 또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것이 기둥 배열이다. 남쪽 면을 기준으로 볼 때, 5개 기둥 중앙부는 6개 기둥의 양 끝단을 기준으로 보면 세 번째 기둥이 없는 셈이다. 좌우 두 칸이 열린 긴 공간이 남쪽으로 치우쳐 건물 장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공간이 된다. 그런데 장변에는 또 다른 장치가 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둥사이 중앙에 우물마루로 된 평면 바닥의 중앙 일부에는 45cm 높이의 단을 두어 꺾패를 모셨다. 머름과 분합문을 두르고, 천장에는 독립된 소란반자를 달아 공간 안에 또 하나의 독립된 공간을 만들었다. 전체 50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내부 공간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지붕과 관련된다. 팔작지붕에서 지붕 높이 차이로 만들어지는 기둥의 높이와 보의 구조는 내부에서 다양한 공간감을 만든다. 고주, 즉 중앙부의 높은 기둥과 평주, 즉 바깥쪽의 낮은 기둥 사이의 차이뿐만 아니라 고주 간의 차이, 그리고 대들보·중중보·중보의 높이와 형태가 기둥과 결합되면서 더욱 다층적인 공간을 만든다. 따라서 세병관은 언뜻 보면 정형적이고 단순한 공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둥 배열, 바닥 높이, 천장 구조의 조합이 공간적 풍요로움과 위계적 긴장감을 동시에 만들어 낸다. 만대루와 달리 직접적으로 고른 부재의 배치를 통해 공간 안에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

외형으로 보이는 것과 과거 건축의 내적 풍부함을 현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신선한 충격을 준 인물로는 피터 아이젠만(P. Eisenman)을 들 수 있다. 그는 건축가이자 이론가로서 서구 르네상스 건축가인 팔라디오(Palladio Virtuel)와 알베르티(Rewriting Alberti), 그리고 현대 건축가 10인(Ten Canonical Buildings 1950-2000)을 분석했다. 그 결과만큼 흥미로운 내용을 우리 건축에서도 끌어낼 수 있다. 아이젠만의 작업이 특별한 이유는, 만대루와 세병관이 단일한 질서가 아니라 다양한 질서의 결합이며 그 질서의 여러 변주를 담고 있다는 점을 재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외형적 유사성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내적 다양성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본다면, 서양 고전건축만큼 다양한 재해석이 가능하다. 게다가 당대의 역사적 맥락을 제거하고 새롭게 분석할 때, 전통건축의 현대적 확장 가능성도 열린다.

한반도, 그리고 경남 지역에도 다양하고 수많은 건축미학이 존재한다. 당대의 관점에서 접근하던 현재적 관점에서 분석하든, 다양한 미학적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같은 시기, 같은 성격의 건축이라 하더라도 세밀하게 살펴보면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다층적 층위는 과거적 관점과 현재적 관점을 동시에 취하는 이중 구조의 접근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 과거적 관점이 보다 공통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면, 현재적 관점은 개별 건축이 지닌 고유한 성격을 드러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증에 기반하면서도 다양한 상상을 끌어낼 수 있는 미학 논의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담양 소재원과 함안 무기연당, 안동 도산서원과 함양 남계서원, 영주 부석사와 창녕 관룡사 등의 다채로운 비교와 미학논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건축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며, 건축을 단순한 기능적 산물이 아니라 예술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21



22

다시 초기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한국전통건축은 예술일까?’ 서구식, 특히 옛 보자르식의 좁은 의미를 벗어나면 한국전통건축은 예술이다. 그러나 과거 건축을 다루면서 우리는 이를 하나의 본질로 명확히 정의할 수 없다. 설령 정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의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임의적 포착일 수밖에 없다.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는 첫 저작 『논리철학논고』에서 정의 가능한 언어와 규정 불가능한 언어를 구분하며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썼다. 말할 수 있는 것에 ‘예술’ 혹은 ‘한국전통건축의 예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영역에 가깝다. 그렇다면 침묵해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언어적 정의에 대한 문제일 뿐이다. 예술은 인간이 느끼는 감각적 반응에 관한 것이므로, 물리적 현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영역과는 다르다. 따라서 예술은 언어로 명징하게 포착되는 영역에 있지 않다. 한국전통건축을 예술로 규정하면서 파악해야 할 것은, 그것이 잊어버린 가치를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역사에 기반하되 현재를 바라보며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 즉 한국전통건축의 예술성은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전통건축은 우리에게 중요한 보물 더미이다.

그림 19. 통영 세병관 외관 (출처: 국가유산청)

그림 20. 세병관 내부 사진 (출처: 국가유산청)

그림 21. 함안 무기연당 (출처: 국가유산청)

그림 22. 창녕 관룡사 대웅전 정면 (출처: 국가유산청)

QUIZ

창원문화재단 오픈북 퀴즈



[함께, 문화가 되다] 퀴즈에 동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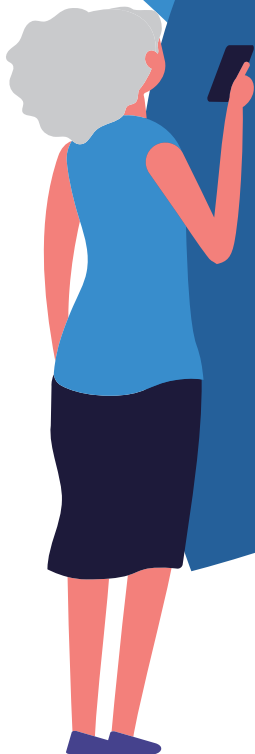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 분들께는 개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

QR코드를 인식하여 구글폼에 접속 후,
퀴즈의 정답을 입력한다.

이벤트 기간

2026.06.30. ~ 2026.07.16



01

3·15아트홀 「화요명작예술감상회」는 7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인문·예술 강좌를 운영합니다. 다음 중 하반기 강좌 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 ① 서예 ② 전통주
③ 영화 인문학 ④ 스포츠 마케팅

02

조현판 선생의 강좌에서 서예의 ‘구도’는 글자를 어떤 크기와 위치로 배치할지 계획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 ① 장법 ② 독화법
③ 원근법 ④ 스푸마토

03

발레를 단순히 몸을 사용하는 예술이 아니라, 기억하고 판단하며 표현하는 예술로 설명합니다. 글에서 발레는 몸과 무엇이 함께 만들어 내는 종합예술이라고 했을까요?

- ① 소리 ② 뇌 ③ 빛 ④ 의상

04

이달의 트렌드 코너에서 공간 업사이클링 사례로 소개된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은 어떤 공간을 활용해 조성된 곳일까요?

- ① 옛 학교 체육관 ② 폐공장 창고
③ 옛 기차역 ④ 유희 항만시설





창원문화재단 제휴업체

창원문화재단에서 드리는 특별한 혜택

문화누리 유료회원에게는 차별화된 할인 혜택을,
후원업체에는 품격과 실효성이 함께하는 특별한 홍보의 기회를 드립니다.



관 광	카페·커피	예술단체	음 식
성산호텔 T. 055-287-9300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53번길 6-30 (용호동) 문화누리 회원 10% 할인 크라운호텔 T. 055-237-1001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5 (말용동) 문화누리 회원 객실 30% 할인	소리고을 T. 055-267-8572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5번길 16-1 문화누리 회원 10% 할인 카페 오로라 T. 055-247-3733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248번길 21 문화누리 회원 10% 할인 카페 파랑새 T. 055-262-2878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성산아트홀 전시동 1층 문화누리 회원 10% 할인 모짜르트 T. 055-296-0310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35 문화누리 회원 10% 할인 더 클라우드 T. 055-274-0001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94번길 19, 102동 4301호 문화누리 회원 10% 할인	(사)경남오페라단 T. 055-266-5580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66, 창원상공회의소 5층 문화누리 회원 10% 할인 갤러리 도원아트존 T. 010-3189-2101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9 신한은행 문화누리 회원 10% 할인 ※ 무료 차 시음 모리 갤러리 T. 010-5500-5052 창원시 성산구 신사로 137-1 (사파동) 모리 갤러리 문화누리 회원 10% 할인 경남액자화랑표구 T. 055-543-3113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239 경남액자화랑표구 문화누리 회원 10% 할인 좋은꽃집 T. 055-248-2211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22 (상남동) 문화누리 회원 10% 할인	석창한정식(한식) T. 055-287-7000 창원시 성산구 성남로 262 문화누리 회원 5% 할인 정근식당 T. 055-243-5678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6길 19 문화누리 회원 5% 할인 미용·뷰티 이카자 헤어비스 마산이마트점 T. 0507-1438-2003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로 3 이마트 마산점 1층 이카자헤어비스 문화누리 회원 20% 할인 공연·기획 리마기획사 T. 0507-1422-1340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99번길 6 문화누리 회원 10% 할인
웨 딩	음 악		
나비혼례 T. 055-275-0442 창원시 성산구 사림로 100번길 19 전통혼례 진행 10% 할인 / 폐백 음식 무료 제공	비빔음악당 T. 0507-1321-3560 창원시 성산구 비읍로 4번길 32 (지하) 문화누리 회원 10% 할인		



창원문화재단 홍보 협력업체



가월돈가스 본점 T. 0507-1416-1365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로71번길 7-8 가월돈가스 중앙역점 T. 0507-1492-1366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18 2층 경남카메라 T. 055-248-9198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2-1 1층 김동철 사진 스튜디오 T. 055-261-0066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80 성원3차아파트상가 109호 나포리 충무김밥 진해점 T. 055-606-6556 창원시 진해구 여영로 72-2 네쌍스 과자점 T. 055-283-8083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25(용호동) 달차라 오리야(도계점, 오리마트) T. 055-276-9952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60번길 13-13, 104호 (도계부부시장 내) 대신서점 T. 055-256-6031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47-1 더게러지 T. 010-2591-9558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17 더게러지	뮤직파라다이스 T. 010-5577-9951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36번길 38-1 봄베이인도요리 T. 055-263-4111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74 제3층 제2호 부영이카페 T. 0507-1315-3497 창원시 진해구 빗꽃로60번길 20-6 진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북카페 마중 T. 055-545-8814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442번길 5 블랑안경 T. 055-247-1777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64 창동빌딩 세계절 냉면 T. 055-265-1937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24번길 23 서온파스타 T. 0507-1383-0715 창원시 진해구 냉천북로4번길 10. 1층 석암서실 T. 055-333-3711 김해시 대성동 350-6 소반 T. 055-544-2994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로 26-1	아름다운안경 T. 055-283-6560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587 1층 아름다운 안경 아이필안경원 T. 055-261-6002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40번길 7 창원터미널트릴파크 안단테 약가사 T. 055-289-7006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96 하이퍼오피스텔 1층 117호 온정온누리약국 T. 055-542-0639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61 작은커피집 T. 0507-1354-2765 창원시 진해구 편백로20번길 8 장복식당 T. 055-262-7474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45 재즈미 T. 055-541-1777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3번길 6-17 지원공인노무사 T. 055-262-1960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59 차와공간다화방 T. 055-542-9446 창원시 진해구 빗꽃로 11-1	창원파티마방원 T. 055-270-1000 창원시 의창구 장이대로 45 청보리책방 T. 0507-1336-7919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38 상가동 104호 최영철 치과 T. 055-279-0822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94 올림피아상가 충무지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보테가 T. 055-544-0141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89(충무동) 필약가사 T. 055-264-6156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26 한독빌딩 하나투어 우리항공여행사 T. 0507-1307-0760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이우스빌딩 103호 행복중심진해소외자생활협동조합 T. 055-552-3657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988번길13-4 환빛서예학원 T. 055-263-3730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77 Espresso 9 T. 0507-1319-4033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20-1 1층	디자인제일 T. 055-296-1339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1길 31-1 마리약가사 T. 055-281-4554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61 맛고을 식당 T. 055-546-6592 창원시 진해구 여영로 89 이송빌라 신세계자동차정비 T. 055-252-7145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7길 61 아구홀감 T. 0507-1334-0491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73번길 6-1 1층 창원 당당한방병원 T. 0507-1405-8275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74 창원당당한방병원 빌딩 3-9층 갤러리 휘 T. 010-8940-8894 창원시 성산구 장이대로689번길4-32 1층(오션타워) HERA (바이크-오토바이 전문점) T. 0507-1383-7479 진주시 진양호로590번길 4 HERA 미라보 T. 055-551-6717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13번길 3-12
---	---	--	--	---

Membership

문화누리 멤버십은

성산아트홀, 3·15아트홀, 진해아트홀, 창원역사민속관·창원의 집을 아우르는 **통합 회원제**입니다.

특별한 혜택

	특별회원	일반회원	혼공회원
연회비	100,000원	50,000원	30,000원
기획공연	30%할인	30%할인	30%할인
기획전시	4매	2매	1매
문화강좌	20%할인	10%할인	5%할인
대관공연 / 전시 공동 기획공연	주최측과 협의하여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할인율 적용 매수는 기획 프로그램에 준합니다.		

장기 회원제

- 2년제 회원가입 시 : 가입비의 10% 할인
- 3년제 회원가입 시 : 가입비의 20% 할인

부가 혜택

- 시립예술단 유료공연 개최 시 20% 할인
- 연1회 회원 초청공연 초대
- 3·15아트홀 모차르트카페, 성산아트홀 파랑새 카페 이용시 10% 할인
- 후원업체 및 제휴업체 할인

창원문화재단 문화누리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공연·전시 입장료 할인과 문화강좌 수강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